15일 Market Index
코스피 3215.28 (+13.25)
코스닥 812.88 (+13.51)
금리(국고채 3년) 2.463 (-0.011)
환율(원·달러) 1378.50 (-2.70)

metro 경제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02)721-9841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뉴메트로 10주년 대한민국 희망을 찾아서 2025년 7월 16일 수요일

| 르포 |
소비심리 회복세
서울 마트 가보니
02

부모보다 못사는 세대 온다… '각자도생' 시대 도래

대한민국 저성장·고령화시대

❶ 0% 성장시대 눈앞

한국 성장률, 세계 평균 밑돌아
초고령사회 진입에 소비 위축
노인빈곤률 38%, OECD 최고
70대, 10대 인구 곧 추월 예고

대한민국의 경제력이 후퇴하고 있다. 국내 경제성장률이 세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다. 저출생 및 고령화에 따른 생산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면서, 자식세대의 경제력이 부모세대에 경제력에 미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자식세대가 부모세대보다 못사는 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부모와 고령자는 스스로의 생계를 책임지는 '각자도생'의 시대가 다가 오고 있다.

◆ 늙어가는 대한민국…임박한 0%대 성장

1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국내 경제성장률 평균은 연 2.3%다. 같은 기간 세계 경제성장률 평균(연 3.1%)에 미치지 못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가 간 재화와 인구 이동을 제한했던 '대봉쇄'가 해소되면서 세계 경제는 회복 국면에 돌입했지만 우리나라는 저성장이 계속되고 있다.

저성장 요인은 산업 경쟁력 악화, 수출에 의존한 경제 구조, 금리 인하 지연 등 다수지만, 주요 요인으로는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소비 위축이 꼽힌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저축 성향이 늘어난 반면, 은퇴 이후 소득 감소를 겪는 노인 인구를 중심으로 소비 성향이 감소하고 있어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지난해 12월부터 초고령사회(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사회)에 진입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이어 2번째이며, 세계적으로는 22번째다. 2000년 31.8세였던 국민 중위연령은 46.1세까지 올랐다.

고령 인구의 비중이 커질수록 사회가 지출하는 비용이 커지고, 경제성장률은 낮아진다. 한국보다 앞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독일·이탈리아 등 주요 선진국은 이미 연 0%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 중이다.

한국은 노인빈곤률이 높고, 인구 재생산률도 낮아 경제성장률의 빠른 하락이 예상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국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률(중위소득 50% 이하 비율)은 38.2%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14.9%의 2.6배에 해당한다. 같은 기간 합계출생률(여성 1인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자녀수)은 0.72명으로, OECD 평균인 1.51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행안부는 내년 6월 국내 70대 인구수가 10대 인구수를 앞지를 것으로 추산한다. 특히 올해부터 700만명에 달하는 1차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의 70대 진입이 시작되면서, 고령 인구의 비중이 빠르게 커질 전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현재 추이가 지속된다면 2040년대에는 국내 잠재성장률 전망치가 0.1%까지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잠재성장률은 한 국가가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이룰 수 있는 최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말한다.

◆ '각자도생'의 시대…노후 대비해야

고령화와 저성장이 동반되면서, 노인 스스로 노후를 책임지는 '각자도생'의 시대가 임박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내 생산성은 감소하는 반면, 사회가 부양해야할 노인은 많아져서다.

통계청이 공개한 지난해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가구주가 은퇴하지 않은 가구가 예상한 적정 노후 생활비는 월 336만원(가구주·배우자 생활비)이다. 전년보다 9만원 늘었다.

〈3면에 계속〉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갤럭시 Z7' 사전예약 개시 이동통신 3사가 갤럭시 Z폴드7과 Z플립7의 사전예약에 일제히 돌입한 15일 서울 마포구 삼성스토어 홍대에서 시민들이 갤럭시 Z폴드를 둘러보고 있다. /뉴시스

LG, 세계 최고 수준 하이브리드 AI 공개

'엑사원 4.0', 지식·추론 통합형
전문성·성능 모두 글로벌 최상위

국내에서도 일반 인공지능(AI)과 추론 인공지능(AI)를 통합한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확보한 하이브리드 AI 모델이 등장했다.

LG AI연구원은 15일 국내 첫 하이브리드 AI 모델 '엑사원(EXAONE) 4.0'을 공개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하이브리드 AI를 공개한 곳은 미국 클로드 개발사인 앤스로픽과 중국 큐원 개발사인 알리바바 정도이며, 오픈AI도 GPT-5를 통합 모델인 하이브리드 AI로 개발 중이다.

LG AI연구원이 공개한 '엑사원 4.0'은 자연어 이해와 생성, 지식 기반의 빠른 답변에 강점이 있는 대규모언어모델(LLM)과 스스로 가설을 세우고 검증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추론 AI 모델을 하나로 결합한 모델이다. 엑사원은 전문 영역에 특화된 AI 모델로, 한층 진화한 엑사원 4.0 모델은 다양한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특히 '엑사원 4.0'은 AI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는 벤치마크 비교에서 MMLU-Redux/MMLU-Pro(AI의 지식수준과 문제 해결 능력 평가) 92.3점/81.8점, LiveCodeBench v6(코딩 능력 평가) 66.7점, GPQA-Diamond(과학 문제 해결 능력 평가) 75.4점, AIME 2025(수학 문제 해결 능력 평가) 85.3점을 기록하며 미국과 중국, 프랑스의 대표 오픈 웨이트 모델을 제치고 세계 최고 수준임을 입증했다.

전문가 모델인 32B(매개변수 320억개) 모델은 의사, 치과의사, 한약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사 등 6가지 국가 공인 전문 자격증 필기시험을 통과하며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증명했다.

온디바이스 모델인 1.2B(매개변수 12억개) 모델은 '엑사원 3.5' 2.4B 모델 대비 크기는 절반으로 줄어 경제적이면서도 수학, 코딩, 과학 분야 등 전문 분야 평가 지표에서 미국 오픈AI의 'GPT-4o 미니'보다 높은 성능을 보였다.

또 기업들이 별도의 GPU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고도 API 형태로 엑사원 4.0을 자사 서비스에 손쉽게 연동할 수 있도록, 프렌들리AI가 지원한다. 프렌들리AI의 추론 플랫폼은 응답 속도가 빠르고 트래픽에 따른 자동 확장을 제공해 기업들이 엑사원 4.0을 대규모 프로덕션 서비스에 쉽게 도입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협력은 LG AI연구원의 모델 개발 역량과 프렌들리AI의 추론 인프라가 만나, 기술적·비용적 장벽을 낮추고 확산을 가속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진식 LG AI연구원 엑사원랩장은 "엑사원이 한국을 대표하는 프론티어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을 지속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공정위, 구글에 조건부 면죄부
뮤직 뺀 '유튜브 라이트' 수용

기존 대비 57% 저가·4년 유지
소비자들 150억 프로모션 혜택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유튜브 라이트)' 출시를 조건으로 한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 내달 14일까지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절차에 돌입했다.

해당 사안은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 단독 상품 없이 유튜브 뮤직을 끼워 파는 형태의 '유튜브 프리미엄'만을 제공함으로써, 국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저해했다는 공정위 조사에 따른 것이다.

15일 공정위가 마련한 잠정 동의의결안에 따르면, 구글은 향후 90일 이내 유튜브 라이트를 출시하고 최소 4년 간 유지·운영하기로 했다.

가격은 안드로이드·웹 기준 8500원, iOS 기준 1만900원으로,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1만4900원·1만9500원) 대비 약 57% 수준이다. 이는 유사 상품이 출시된 미국, 영국 등 6개국 가운데 가장 낮은 가격 비율이다.

구글은 또 국내 소비자들에게 연장 무료 체험(2개월, 총 75억원)과 재판매사 할인(총 75억원) 등 총 150억원 규모의 프로모션을 제공한다. 공정위는 이로 인해 약 210만명의 국내 소비자들이 실질적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유튜브 라이트 출시 이후 1년간 가격을 동결하고, 이후에도 유튜브 프리미엄 대비 가격 비율을 해외 주요국보다 높지 않게 유지하기로 했다. 유튜브프리미엄 가격도 1년간 동결된다.

구글은 국내 음악 산업 활성화를 위해 4년간 신진 아티스트 48팀을 육성하고, 이 중 8팀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사업에는 150억원이 투입된다. 구글은 "해당 프로그램은 기존 활동과 별도로 동의의결 목적에 따라 신설된다"고 공정위에 확약했다.

〈3면에 계속〉

/한용수 기자 hys@

메트로 한줄뉴스

▲이재명 대통령, 20개 APEC 회원국 정상에 초청 서한 보내 /사진 뉴시스

▲여야, 상법 '3%룰' 보완해 합의 처리 추진… 집중투표제는 공청회로

▲국방부, 일본 방위백서 관련 주한 일본방위주재관 초치

▲"노란봉투법만으로 노동문제 못 풀어… 초기업 교섭 필요"

▲통일부 "북, 부품 밀수해 휴대폰 등 전자기기 제작 추정"

▲진보당 "광주 하남산단 지하수 오염, 시장·구청장 사과해야"

평일 오전, 찬거리 장만 '활기'… 정부 정책에 소비심리 부흥

르포 | 서울시내 대형마트·가전매장 가보니

소비심리지수 3개월 연속 상승

매장내 HMR 보양식품 프로모션
간편식삼계탕 등 초복수요 겨냥

"소비심리 부흥하는것, 반가운 일
유통사 다양한 프로모션 진행을"

15일 한 서울시내 대형마트 매장 안에서 중장년층이 장을 보고 있는 모습.

15일 서울시내 한 편의점 매장에 소비심리 쿠폰 사용처 포스터가 붙어있다 . /안재선 기자

"싼데 왜 안 사. 살 수 있을 때 사야지"

평일 오전에도 불구하고, 서울 시내 한 마트에는 장보기에 바쁜 중장년층들로 활기가 돌았다. 마트에서 만난 김 모 씨(72)는 찰옥수수를 이리저리 뜯어보며, 싱싱한 원물을 찾기 바빴다. 그 옆에 함 모 씨(75) 역시 파프리카 원물을 신중하게 골라 봉지에 담았다. 두 소비자 모두 저녁 밥상거리를 둘러보려 마트에 방문했다고 답했다.

1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심리지수가 지난 4월(94), 5월(102). 6월(109)로, 3개월 연속 오름세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소비자 대상 경제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조사한 수치로, 100을 상회하면 경제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심리가 낙관적임을 뜻한다.

소비심리 회복세 배경으로 정부의 지원 정책이 거론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 정부가 소비심리 진작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그 중 업계가 주목하는 대표적인 게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사업'과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이라며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우 사용처를 놓고 이견이 많은데, 해당 정책이 전반적인 경기 회복 기대감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다"고 전했다.

◆초복 돌입… 보양 여름 식품 마케팅 '활발'

유통가는 이 같은 흐름에 따라 기존 주력 분야였던 식품에 더해 가전제품으로 프로모션 영역을 넓히며 고객 확보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날 둘러본 롯데마트 매장 내에는 간편조리식품(HMR) 형태의 보양식 식품들이 크게 진열돼 있었다. 이 외에도 대게, 전복 등 수산 보양식 할인 행사도 함께 진행됐다. 무더위 속 기력 회복을 원하는 고객들의 수요를 겨냥하고자 나선 것이다.

이마트 역시 이달 17일부터 20일간 '간편식 삼계탕', '생닭 두마리' 등 상품 구성을 중심으로 초복 수요 잡기에 나선다. 계속되는 생닭 가격 상승에도 불구 10년 전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제공할 예정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이 외에도 GS25·CU·세븐일레븐 등 주요 편의점 역시 HMR 간편 보양식 상품들을 출시하면서 초복수요 잡기에 동참하고 있다.

◆갤럭시Z 사전예약에, 대소형 가전 마케팅도

전자 및 가전제품 마케팅도 강화한다. 대표적으로 이마트는 삼성전자가 새롭게 출시한 '갤럭시Z' 사전예약 판매를 진행하는가 하면, 정부의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에 따라 냉장고, 세탁기 등 삼성, LG 대형가전을 중심으로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롯데백화점도 가전제품 환급 행사를 진행 중이다. 이달 31일까지 일정 금액 가전제품을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롯데상품권을 제공한다. 쿠팡 등 온라인 유통업계도 가전 마케팅에 가세했다. 쿠팡은 일부 제품에 카드사별 할인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은 에너지소비효율 최고 등급인 가전제품을 구매한 국민에게 제품 구매가의 최대 10%를 환급해 주는 정부 주도 사업이다.

소비자 박 모 씨(32)는 "소비심리가 부흥하고 있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라면서 "앞으로 유통기업의 다양한 프로모션으로 다양한 제품을 더 실용적으로 살 수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삼성전기, AI서버·전장시장 저격… MLCC개발 올인

이민곤 MLCC 개발팀 상무
"두 시장에 전체역량 70% 이상 투입"
고부가 제품 중심 수익성 확대 속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해 10월 필리핀 라구나주 칼람바시에 위치한 삼성전기 필리핀법인을 찾아 MLCC 제품 생산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삼성전자

삼성전기가 전자산업 핵심 부품인 적층세라믹캐퍼시터(MLCC)를 '더 작고 강하게' 진화시키며 고성장이 기대되는 AI 서버와 전장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기술 장벽이 높은 고부가 제품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전환하며 수익성과 시장 지배력 확대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이민곤 삼성전기 MLCC 개발팀 상무는 14일 서울 태평로 삼성전자 기자실에서 열린 기술 학습회에서 "AI 서버와 전장에 필요한 고신뢰·고용량 MLCC 개발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두 시장에 전체 역량의 70% 이상을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MLCC는 전기를 저장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부품이다. 반도체와 센서 등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돕는 전자산업의 필수품으로, '전자산업의 쌀'이라 불린다.

스마트폰, 노트북, 무선이어폰은 물론 전기차와 서버에도 수백 개에서 수만 개까지 탑재된다. 최근에는 AI 서버와 자율주행차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신뢰성과 내구성이 요구되면서, MLCC는 '두뇌' 역할까지 하는 핵심 부품으로 부각되고 있다.

스마트폰 한 대에는 약 1100개의 MLCC가 들어가지만 AI 서버에는 2만8000개, 전기차에는 2만~3만 개가 탑재된다. 자율주행이 1단계에서 3단계로 진화할 경우 필요한 MLCC 수량은 600개에서 6000개 이상으로 늘어난다.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5단계 차량에는 수만 개의 고성능 MLCC가 요구된다.

이 상무는 "전장용 MLCC는 IT 제품보다 개발 기간이 3배가량 길고 가격도 3배 이상 높다"며 "자율주행 시스템처럼 생명과 직결되는 분야에선 안정성이 최우선"이라고 설명했다.

AI 서버는 전력 소모와 발열이 크기 때문에 고내열·고용량 MLCC의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삼성전기는 이 시장에서 40% 수준의 점유율을 확보하며 일본 무라타와 함께 선두를 달리고 있다.

MLCC를 담당하는 컴포넌트사업부는 삼성전기 전체 매출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핵심 사업이다. 삼성전기는 고온과 고전압 등 극한 환경에서도 안정성을 확보한 제품을 앞세워 고부가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삼성전기는 수원과 부산에서 연구개발과 소재 생산을 진행하고 있으며, 중국 톈진과 필리핀 칼람바에 대량 양산 기지를 운영 중이다. 최근에는 필리핀 공장 증설도 검토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MLCC는 작지만 기술 장벽이 높은 부품"이라며 "삼성전기가 AI와 자율주행 시장을 겨냥해 수익성과 기술 경쟁력을 동시에 끌어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혜민 기자 hyem@

APEC 10월31일 개최

李 대통령, 회원국에 초청 서한

이재명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 20곳에 경주 APEC 정상회의 초청 서한을 발송했다. 경주 APEC 정상회의는 오는 10월31일부터 11월1일 열릴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20개 APEC 회원국 정상들에게 금년도 APEC 정상회의가 10월31일부터 11월1일까지 대한민국 경주에서 개최될 예정임을 알리며, 정상회의에 회원국을 초청하는 내용의 서한을 어제(14일) 발송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초청 서한에서 APEC이 지난 30여년 동안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번영에 기여해왔음을 높게 평가하며 "올해에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이라는 주제 아래 ▲역내 연결성 강화 ▲디지털 혁신 진전 ▲번영 촉진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며, 이런 논의가 정상회의를 통해 결실을 맺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APEC 정상회의에 앞서, 10월 마지막 주간에 APEC 최고 고위관리회의, 외교통상 합동 각료회의를 개최해 APEC 정상회의 준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강 대변인은 "이와 병행해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 최고경영자(CEO) 서밋 등 다양한 경제인 행사도 함께 열린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APEC의 성공적 개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관련 비서관들이 모두 참여하는 대통령실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정상회의 일정과 인프라, 의제, 부대행사, 문화행사 등 제반 사항을 면밀히 점검해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예진 기자 syj@

금융 정책-감독 분리 '금융위 개편' 실현되나

국정위, 대통령에 조직개편 초안 보고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 초안이 대통령실에 보고된 가운데,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부분과 금융감독 부분을 분리하는 조직 개편이 실현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부조직개편안 초안을 보고했으며,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검토하는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구체적인 정부조직개편안 초안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국정위의 정부조직개편TF(태스크포스)는 금융위원회의 기능 분리와 관련해 ▲금융위의 금융정책 총괄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 ▲금융위 감독정책 기능, 금융감독원의 감독집행 기능을 합친 '금융감독위원회' 신설 ▲금감원 내부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격상 및 검사권 부여 등을 골자로 개편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금융위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은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이 맡고,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금융소비자보호원이 맡도록 하는 감독체계로 구상됐다.

정부가 금융위 기능 분리를 추진하는 이유는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권한을 동시에 갖고 있어 비대해진 조직을 슬림하게 만들고, 금융감독 기능 강화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집중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박태홍 기자 pth7285@

외국인, 전액 대출 '투기쇼핑'… 내국인, 자금 마련 '발 동동'

부동산 규제 '역차별' 논란

내국인, 부동산 규제 직접적 영향
외국인, 국외 금융기관 통해 회피
정치권, 상호주의 원칙 확대 움직임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응 TF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조이는 초강력 대출규제를 내놓은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부동산 시장 규제가 내국인에게는 '역차별적'이라며 외국인들에 대한 부동산 투자를 규제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내국인 부동산 규제 역차별 논란은 정부의 6·27 대책 같은 부동산 시장 규제에 내국인은 직접 영향을 받는 것과 달리, 외국인은 해외 금융사 대출 등 자금만 마련하면 투기성 부동산 구입을 해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외국인에게 토지 시장을 개방한 1998년 이후 외국인 부동산 취득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됐으며, 토지에 국한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아파트 등 주택을 포함한 일반 부동산에 대한 규제는 미비한 상황이다.

또한 외국인이 국외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마련할 경우 우리나라의 대출 규제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에 더해 외국인은 내국인과 달리 양도세·보유세 중과 적용을 받지 않는다. 실제로, 1988년생 중국인이 지난 2021년 해외 금융사에서 전액 대출을 받아 도곡동 타워팰리스 한 채를 89억원에 매입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통계를 보면 올해 상반기 전국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외국인 임대인은 1만5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1%가 증가했다. 지역별로, 서울이 5024명으로 47.8%를 차지했고 이 중에서도 강남구가 594명으로 제일 많았다. 그 뒤를 송파구 486명, 서초구 420명, 마포구 339명, 용산구 301명 순으로 이었다.

외국인들이 이른바 강남3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서울의 집값이 나가는 곳을 선호하고 투자하고 있다고 풀이된다.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 중인 주택 가구 수도 10만216가구이고 이 가운데 중국인이 전체의 5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외국인 보유 주택 4채 중 1채는 서울에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주택 이상 소유 외국인도 1년 새 10.2%가 증가했다.

이에 여야를 가리지 않고 상호주의 원칙 적용 대상을 토지에서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부동산으로 확대하고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등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발의되고 있다.

외국인의 군사시설 인근 토지 취득을 금지하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안부터, 수도권 전 지역에 대해 '중국 등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자는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안, 부동산 취득 시 상호주의 원칙을 규율하는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안,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시 최소 1년 이상의 국내 체류 요건을 충족하게 하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안, 외국인 부동산 허가제 전환 및 부동산 취득시 최소 3년 이상 국내 체류 요건을 규정한 이언주 민주당 의원안까지 다양한 안이 발의됐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를 두고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불만이 나오는 가운데, 제1야당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이끄는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7월 중 내국인 부동산 시장 규제 역차별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권영진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외국인에게만 규제가 비켜가는 규제 사각지대이자 역차별의 온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외국인이 이렇게 우리나라 부동산 매입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첫째로, 외국인은 내국인과 달리 자국의 금융기관을 통해 마음대로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고, 다주택 여부 파악도 어려워서 중과세 등 세금도 회피할 수 있는 등 각종 혜택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등 주요 국가는 외국인 부동산 매입을 안보 위협으로 보고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국민이 더 이상 역차별로 분노와 시위 속에서 고통받지 않도록 입법적, 정책적 대응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3분기 은행권 대출문턱 높아진다

6억 이상 주담대 제한 등 영향
가계 중심 대출태도 강화 전망

5일 서울 시내의 한 시중은행 내 대출상담 창구 모습. /뉴시스

오는 3분기(7~9월) 가계 부문을 중심으로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의 대출 문턱이 높아진다. 특히 정부가 수도권 지역에 6억원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만큼 주택 관련 대출 심사는 더 깐깐해질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대출 행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3분기 국내은행의 대출태도는 가계 부문을 중심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대출 행태 서베이는 총 203개 금융회사(국내은행 18개, 상호저축은행 26개, 신용카드 회사 7개, 상호금융 조합 142개 및 생명보험 회사 10개)의 여신업무 총괄담당 책임자를 대상으로 신용위험과 대출수요에 대한 지난 3개월간 동향과 향후 3개월간 전망을 조사한 결과다.

조사 결과 국내은행은 가계 부문을 중심으로 대출을 강화할 전망이다. 차주별 대출 태도 지수를 보면 대기업은 6으로 전 분기보다 12포인트(p) 상승하고, 중소기업은 -6으로 같은 기간 8p 상승했다.

반면 가계의 신용대출을 포함하는 가계 일반은 -22로 전 분기와 비교해 11p 감소하고,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하는 가계 주택은 -31로 같은 기간 20p 떨어졌다.

가계대출의 경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7월부터 시행되고, 수도권 지역에 6억원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이 추가 시행되면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모두 강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은행들은 기업의 경우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수익성이 저하되면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신용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소기업이 1개월 이상 원리금을 연체한 경우는 지난 3월 0.76%로 기록됐다. 지난해 말 0.62%보다 0.14%p 높은 수준이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은 지난해 말 1.05%→1.28%로, 도·소매업은 0.86%→0.99%로 상승했다. 제조업도 같은 기간 0.70%→0.83%로 올랐다.

가계는 취약 차주의 부채 상환 능력이 저하되면서 신용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내은행의 신용대출 연체율은 지난 3월 0.69%로 전년 말 0.64%와 비교해 0.05%p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같은 기간 0.26%에서 0.29%로 0.03%p 올랐다.

은행들은 대내외 경기 상황의 불확실성과 업황 부진 등에 따라 운전자금과 유동성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의 대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은행들이 예상한 대출 수요 지수는 대기업의 경우 올 3분기 6으로 전 분기(8)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중소기업은 25로 전 분기(11)보다 14p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가계대출 수요는 규제 강화 영향으로 주택 관련 대출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가계 주택 대출 수요 지수는 -6으로 전분기와 비교해 23p 내렸다. 반면 생활비를 목적으로 한 신용대출(가계 일반)은 2p 올렸다.

한편, 비은행금융기관은 모든 업권에서 강화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차주의 채무상환 능력이 저하되며 연체율이 상승세를 보여 자산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심사가 깐깐해질 것이란 분석이다.

지난 3월 기준 상호저축은행의 연체율은 8.99%로 지난해 말(8.52%)보다 0.47%p 올랐다. 같은 기간 상호금융 조합 5.13%→6.45%, 신용카드 회사 2.07%→2.34%, 생명보험회사 0.37%→0.39%로 상승했다.

3분기 중 비은행 금융기관의 신용위험은 상호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조합을 중심으로 높은 수준을 이어갈 전망이다.

상호저축은행의 신용위험 지수는 25, 상호금융조합은 34로 전 분기보다 각각 2p, 6p 줄었지만,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은퇴 이후에도 일할수 있는 업 마련해야"

›› 1면 '부모보다 못사는 세대'서 계속

적정 생활비는 늘어난 반면, 자녀를 비롯한 가족의 부양 기대는 후퇴했다. 생활비 충당 방법에서 자녀를 비롯한 가족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보다 감소(25.4%→24.3%)했고, 기존에 본인이 저축한 금융자산으로 충당하는 비중은 상승(4.8%→5.4%)했다. 자녀가 지원하는 생활비는 줄어 들고, 직접 소득이나 은퇴 이전에 축적한 재산으로 생활하는 비중은 커졌다.

자녀의 부양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앞으로도 감소할 전망이다. 자식 세대가 가난해지고 있어서다.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연간 물가 상승률 평균은 3.95%로, 연간 임금상승률 평균인 3.7%를 앞질렀다. 생산가능인구도 줄어든다. 지난 2023년 3657만명이었던 생산가능인구는 오는 2044년에는 2717만명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비용을 이유로 정부의 지원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고령자가 스스로 금융소득을 확충하고 근로소득도 확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익 내일희망경제연구소장(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은 "경제주체의 부채가 너무 많아 정책적 대응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고, 자식세대가 부모세대보다 가난해졌다"라면서 "(고령자 스스로가) 건강과 근로소득을 유지해야하고, 직(職)은 영원하지 않은 만큼 은퇴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업(業)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법령 요건 심의… 통상이슈 제기된 적 없어"

›› 1면 '공정위, 구글에 조건부'서 계속

공정위가 구글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대신 동의의결 제도를 활용한 배경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압박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도 최근 방미 결과 브리핑을 통해 "미국 측은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 문제를 비관세 장벽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디지털·플랫폼 규제 이슈도 통상 테이블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대미 통상 마찰을 피하면서도 국내 소비자와 콘텐츠 산업의 실익을 확보하려는 정무적 판단을 내린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김문식 시장감시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동의의결이 최종 확정되면 구글은 의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라며 "이후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에는 연내에 출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구글 제재에 따른 통상마찰 우려에 따른 판단이란 지적과 관련해서는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이나 동의의결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통상 이슈가 제기된 적은 없다"며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을 차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법령 요건이 충족돼 있는지 여부를 심의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소액주주, 대통령실 탄원 행렬… KG그룹 등 재계 불안감 확산

"주주가치 훼손" 내세워 반발
한화·롯데 주주들 집단행동
상법 개정 뒤 행동주의 확산
재계, '경영권 방어책' 촉구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명시', '상장회사 사외이사의 독립이사로 변경'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면서 재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이 개정 후 '회사와 주주를 위하여'로 주주가 추가되면서 최근 소액주주들이 잇따라 '주주가치 훼손'을 전면에 내세우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기업 향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이에 재계는 경영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KG그룹 소액주주연대는 지난 2일 대통령실과 금융당국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본격적으로 집단행동에 나섰다. 이들 주주연대는 KG그룹 계열사들이 불공정 거래와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통해 주주가치를 지속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번 행동은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

KG그룹 본사 전경. /KG그룹

한화그룹 본사 사옥 전경. /한화그룹

를 통해 결집한 KG그룹 6개 상장사(KG케미칼, KG에코솔루션, KG모빌리티, KG스틸, KG이니시스, KG모빌리언스) 소액주주들의 공동 대응으로 이뤄졌다. 탄원서에는 2017년 KG제로인과 KG네트웍스의 합병 과정에서의 편법적 경영 승계, KG에코솔루션이 2차 전지 사업을 위해 정관을 변경한 뒤 2년 만에 이를 철회한 투자자 기만 정황,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교환사채(EB)로 전환해 장부가치의 20% 수준인 헐값에 교환가액을 설정한 것에 대한 배임 가능성 등이 담겼다.

이에 KG그룹은 "사실과 동떨어진 내용에 아쉬움을 표한다"며 "그동안 모든 경영활동을 법과 원칙에 따라 수행했으며 앞으로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투명한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같은 소액주주의 움직임은 KG그룹만이 아니다. 한화그룹을 향한 소액주주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간 한화 1우선주(한화우)를 놓고 한화우 소액주주 연대는 1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라고 요구하는 반면 한화는 "보통주, 3우선주 주주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한화우 소액주주연대는 지난 7일 "한화가 주주가치 제고라는 명분 뒤에 숨어 실질적으로는 상장폐지를 통해 소액주주를 배제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대통령실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자사주 소각 후 상장 유지 요건(20만주)에 단 967주가 부족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닌 의도된 결과"라며 "상장폐지 수순에 앞서 지난해 7월 진행된 공개매수 가격(4만500원)은 당시 순자산가치(BPS)의 3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한화가 주주들과의 마찰을 빚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한화그룹의 방산 계열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3월 3조6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진행한다고 밝히면서 주주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이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소액주주들을 달래고자 유상증자 규모를 2조3000억원으로 줄이고,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소액주주들이 15% 할인된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도록 했다.

롯데렌탈도 소액주주 연대의 압박을 받고 있다. 롯데렌탈이 210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하자 소액주주들이 단체행동에 나섰다. 현재 시장가 대비 낮은 가격에 발행 가격이 책정돼 기존 주주의 권익이 침해된 반면 대주주의 지분 매매 가격은 시가의 2.6배에 매각돼 소액주주만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실과 공정거래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처럼 소액주주들이 잇따라 단체 행동에 나서는 것은 이 대통령이 제시한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의 영향이 크다. 이를 통해 기업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감원과 공정위가 롯데렌탈의 유증과 한화 우선주의 상폐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양사의 사태는 일단락 될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기업들의 경영활동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목소리는 계속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경제 8단체는 상법 개정안 통과 후 공동 입장문을 통해 "법 개정 취지에 공감하지만 이사의 소송 방어 수단이 마련되지 못했고 3%룰 강화로 투기세력 등의 감사위원 선임 가능성이 높아진 점 등에 우려가 크다"고 밝힌 바 있다.

재계 관계자는 "집중투표제나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이 실제로 도입될 경우 외부 세력이 이사회 과반을 차지할 수도 있고, 경영권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경영 판단 원칙 도입이나 배임죄 개선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형사리스크 걷어내야"… 김태년, 특별배임죄 삭제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략적 판단·투자 위축 부작용
형법에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
코스피5000 뒷받침할 입법 취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정부·여당의 상법 개정안 추진으로 인해 재계가 우려하는 배임죄 남용을 방지하고 기업의 전략적 경영판단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상법·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상법상 특별배임죄 조항을 전면 삭제했다. 특별배임죄란 상법에서 특정 유형의 배임 행위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것을 뜻한다. 특히, 회사 임원 등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회사에 손해를 입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특별배임죄의 경우 이사 등에 대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법에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의적인 사익 편취와 정당한 경영 판단을 명확히 구분해 기업의 전략적 경영판단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김태년 의원 측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정부가 추진 중인 '코스피 5000 시대 실현 전략'의 일환이자, 지난 3일 주주권 강화와 지배구조 투명성 확대를 위한 상법 개정안과도 균형을 이루는 입법 조치다. 또한 주주 권리 강화와 투명성 제고는 유지하되, 정당한 경영 판단이 과도한 형사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도록 초점을 맞췄다.

재계는 기업들이 합리적 경영 판단조차 사후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배임죄 고발에 노출되는 구조에 직면해 있다면서 법인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 추진에 우려를 드러냈다.

일각에선 이러한 구조가 결과 중심의 처벌로 이어지며, 경영 위축과 보수적 투자 행태가 고착되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김태년 의원은 "배임죄 남용이 자본시장을 위축시키고, 기업의 전략적 판단과 투자 유인마저 떨어뜨리고 있다"며 "이제는 투명성을 갖춘 자본시장을 회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은 7월 3일 통과된 상법 개정안의 취지를 보완하는 입법으로, 과도한 형사리스크는 걷어내고, 건강한 경영 판단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부동산이 아닌 주식에 투자하는 대한민국, 코스피 5000시대를 뒷받침할 신뢰 기반을 제도적으로 갖추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는 단순히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니라, 제대로 작동하는 자본시장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자본시장 회복을 위한 입법적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별개로 주주 권리 보호를 위한 2차 상법 개정안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위한 상법의 보완 입법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법 관련 공청회가 있었다. 이 공청회를 통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또 감사위원도 분리 선출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확인했다"며 "집중투표제는 이미 상법에 규정돼 있는데, 회사 정관으로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놓고 있는 것이다. 그 단서를 떼내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감사는 말 그대로 경영진을 감시하라고 있는 조직 아닌가. 이것이 대주주나 지배주주에 의해 장악돼 버린다면 제대로 감시할 수 있겠나"라며 "분리선출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자는 것이 이번 2차 상법 개정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더 이상은 대주주만의 이익을 위해 일반 주주, 소액 주주의 이익이 희생돼선 안 된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선 이 두가지 제도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낡은 틀부터 깨야"… 대한상의, 신산업 규제 개정안 54건 제출

벽 없는 연구실은 인정 못 받아
태양광 사업, 농지법에 막혀
진입창 거리 규제에 공장 멈춰

대한상공회의소는 '새로운 성장 시리즈 신산업 규제 합리화 건의서'를 통해 과거에는 의미가 있었지만 지금은 다르게 접근해야 하는 '신(新)산업 내 구(舊)규제' 54건을 정리해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과 제도를 만들 당시에는 딱 맞는 규제였지만, 새로운 성장 체계를 만드는 지금은 낡은 규제일 수 있다는 것이다.

먼저 벽에 막힌 기업 연구실이다. 첨단 전략산업은 기술변화에 따라 인력의 재배치가 빈번하고 연구실, 사무실 등 아이디어 융합을 위해 업무의 벽을 허물어 가고 있다. 하지만, 기초연구법상 '고정벽체와 별도 출입문을 갖춘 공간'만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인력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4면의 콘크리트 벽과 출입문을 만들어야 한다. 혁신을 위해 별도의 의미없는 공간을 세워야 하는 것으로 현실과 맞지 않다는 뜻이다.

반도체 공장에 '수평 40미터 간격'으로 획일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진입창 규제도 마찬가지다.

반도체 공장은 위험물을 취급하는 가스룸과 외부오염물질 유입을 극도로 통제하는 클린룸이 크게 위치해 있어 '수평거리 매 40미터마다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해야 한다'는 규제가 반도체 공장의 소방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으로 지적돼 왔다. '일률적인 물리적 간격을 정하는 것보다 시설의 기능에 맞게 진입창이 배치돼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새 정부가 방점을 찍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규제도 개선 대상에 올랐다. '논밭 위의 태양광'이라 불리우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은 식물을 강렬한 태양광으로부터 보호하고 전기도 만드는 1석 2조의 아이디어 사업으로 남태평양 국가들에서도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법상 농토 이외의 일시적 타용도 사용 허가기간이 최장 8년으로 제한돼 있다. 수익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당초 농지의 본래 목적인 식량 생산을 보전하고 무분별한 비농업적 용도 전환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규정이지만, 지금은 에너지 전환과 농촌 소득 다각화가 중요한 시대라는 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농한기 농가의 부수입이 되기도 해 농가에서도 보급을 희망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승용 기자 lsy2665@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친환경 세상을 위해,
NH가 손을 보탭니다

ESG 경영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 NH농협금융은 그 속도를 한 층 높이고 있습니다
전사적 친환경 활동은 물론, 친환경 기업에 투자·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친환경 생태계 구축에 사회적 역할을 다합니다
농업·농촌 지역사회에서 상생의 이념으로 성장해 온 태생적 친환경 그룹인 NH농협금융은
이제, 아시아를 대표하는 친환경 금융그룹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NH농협금융

NH농협은행 NH농협생명 NH농협손해보험 NH투자증권 NH-Amundi자산운용 NH농협캐피탈 NH저축은행 NH농협리츠운용 NH벤처투자 NH농협카드

안규백 "전작권 전환 목표", 김성환 "재생에너지·원전 믹스"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슈퍼위크

권오을 후보, 과거 보수정당 활동 국민의힘 '철새 정치인' 비판

임광현 후보, 세무법인 급성장 의혹 "퇴직공직자로서 전관특혜 없었다"

(왼쪽부터)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 장관 후보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발언 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사청문회 슈퍼위크 2일차인 15일, 안규백 국방부·김성환 환경부·한성숙 중소기업벤처부·권오을 국가보훈부·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창군 이래 첫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안규백 장관 후보자는 이날 오전부터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전쟁과 같은 비상상황에서 군대를 지휘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는데, 대한민국은 한미 연합방취체제 아래 평시 작전통제권은 한국 합참의장이, 전시 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군사령관이 갖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한미 정상은 2006년 9월 정상회담을 통해 전작권 전환 기본원칙과 이행지침 등을 합의하고 2007년 2월 한미 국방장관이 2012년 4월17일에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고조된 북한의 군사위협 등을 이유로 전환 일자가 2015년 12월1일로 조정됐으며, 지금까지도 전작권은 전환되지 않았다.

안규백 후보자는 전작권 전환에 대한 입장을 묻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2006년부터 한미 합의로 주기적 평가 등의 단계를 거쳐, 우리 군의 피나는 노력으로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고 알고 있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재생에너지와 원자력발전을 적절히 섞어 전력원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연내에 탈(脫)플라스틱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도 했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적정하게 믹스하면서 가는 게 대한민국의 장차 에너지 정책이 돼야 할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 들어 급격한 탈원전 정책을 펴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자 김 후보자는 "제가 탈원전을 최근에 주장한 적은 없다"며 "모호하지 않게 잘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연내 원천 감량과 순환이용에 기반한 탈 플라스틱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면서 "자원을 무한히 소비만 하는 일방향 경제구조를 순환형 구조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확대하고 플라스틱·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보수 정당에서 정치를 했던 권 후보자를 이른바 '철새 정치인'이라며 비판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는 통합민주당(소속)으로 의원이 되신 후 우리 당인 신한국당 쪽에 오셔서 3선까지 하셨다"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셨고 우리 당(의원)이 국회의장일 때 장관급인 사무총장도 하셨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 또 당을 바꿔서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전문성도 없는 보훈부 장관 시켜준다니까 얼른 나서게 되지 않았나. 대표적 '보은 인사'로 언론 등에서 얘기가 나온다"며 "시쳇말로 꿀 발린 데만 찾아 꿀 빠는 인생이란 비아냥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권 후보자는 "'그렇게 또 생각하시는구나'라고 생각했다"고 짧게 답했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국세청 출신인 임 후보자가 공직을 그만둔 후 일했던 세무법인이 2년간 100억원대 매출을 올린 것이 '전관예우'가 아니냐는 야당의 질의가 있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세무법인 '선택'은 1년9개월 동안 약 100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다. 같은 기간 자본금은 27배나 늘었다. 이 법인은 개업 9개월 만에 45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이 기간 동안 영업이익은 25억원에 달했다. 자본금은 설립 당시 2억원이었는데 지난해 6월 55억3900만원까지 급증했다. 업계에서도 이 법인의 급성장을 매우 이례적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후보자는 "제가 (법인을) 설립했다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정확하지 않은 면들이 있다. 참여 제안을 받아 참여한 것"이라며 "저 말고 다른 구성원 분들은 이미 대형 회계법인 출신 회계사나 국세청 조사국 출신 세무사들로, (매출 100억원은) 기존에 개인으로서 영업을 했던 분들이 모여서 기존 매출이 합계되다 보니 나온 숫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세청 퇴직 후 2024년 총선에 출마할 때까지) 1년 6개월 정도 법인에 적을 두고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 퇴직 공직자로서 윤리 규정에 어긋남이 없도록 조심을 하면서 지냈다. 제가 세무법인에서 받은 건 월 1200만원 정도의 보수가 전부였다. 전관특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이사충실 의무확대·3%룰' 상법개정안 의결

李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집중투표제 등은 추후 논의 예정

李 대통령 "낭비성 예산 정비·조정 민생 경제 중심 효율적 예산안 편성"

이사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과 '3%룰'이 담긴 상법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안건은 법률공포안 16건, 대통령령안 13건이다.

이날 통과된 상법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있다.

여야는 최대 쟁점인 3%룰과 집중투표제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다 3%룰을 일부 보완해 처리했다.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조항은 추후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상법개정안은 (국무회의에서) 아무런 이견이나 의견 없이 바로 의결됐다"고 전했다.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계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계엄 시 군인과 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고,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과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과 회의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군경이 국회의원·공무원 출입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할 수 있다.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보할 때 국무회의 일시와 장소, 출석자 수, 발언 내용이 담긴 국무회의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2026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내년에도 정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면서도 "한편으로 지금 나라 살림의 여력이 그리 많지가 않은 문제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각 부처는 관행적이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예산, 낭비성 예산들을 과감히 정비·조정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예산 편성 과정에 폭넓게 반영해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가능하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내년 예산이 회복과 성장의 실질적인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민생 경제 중심의 효율적인 예산안을 편성해 주시도록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는 재정 확대 기조는 유지하지만, 비효율적이거나 관행처럼 쓰였던 예산을 점검해 민생 경제 중심으로 돌려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소방청·기상청·산림청의 업무 보고를 받았다. 특히 이 대통령은 산림청 보고에서 공공일자리에 적정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면서 "국가 재정은 '안 쓰는 것'이 아니라 '잘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대통령은 휴학 중인 의대생들이 올해 2학기 전원 학업복귀를 선언한 데 대해 "교육 당국이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관련 부서들은 공공재인 지역의료, 필수의료, 응급의료 공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보완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의대생들에게는 "여러분도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예비 의료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가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누구의 탓이라고 할 수 없지만 우리 사회에는 대화가 참 많이 부족하다. 지금부터라도 모든 영역에서 대화들이 원활하게 좀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오늘은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라며 "관계 당국은 국가적 참사와 관련해서 철저한 진상 조사와 책임 규명, 그리고 충실한 유가족 지원 조치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반사회적 언행들이 많다. 어떻게 이런 짓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행위들이 꽤 많이 발생한다"며 "이에 대해서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서예진 기자 syj@

당정,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구간 완화

〈7~8월〉

취약계층에 에너지바우처 일괄 지급

구간 확대로 전기요금 약 20% 할인

당정이 올해 역대급 폭염에 따른 냉방비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7~8월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완화하기로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폭염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원이 의원은 "당은 폭염 상황에서 전력 사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지난 7월 1일부터 취약계층에 70만1300원의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일괄 지급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요금 감면 한도도 월 최대 2만원으로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15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오피스텔의 전력량계가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회에서 폭염대책 간담회를 열고 7~8월 전기 누진제 구간을 완화해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뉴시스

김 의원은 현재 한국전력에서 2019년 여름철부터 시행 중인 여름철(7·8월) 전기요금 누진 구간 완화 제도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기요금 1단계 적용 구간은 기존 200kWh 이하에서 300kWh 이하로 확대했다. 2단계 구간은 기존 201~400kWh에서 301~450kWh로, 3단계 구간은 기존 401kWh 이상에서 451kWh 이상으로 완화했다.

김 의원은 "역대 최고의 폭염이 예측돼 전력 당국은 이번 여름철 최대 전력 수요가 97.8GW(기가와트)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며 "당정은 전력 공급 능력을 충분히 확보해 폭염 상황에서 국민이 전력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누진 구간 확대로 전기요금이 약 20% 할인될 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7월을 전후해 찾아온 폭염은 농작물 피해뿐만 아니라 냉방으로 인한 에너지 수요도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이맘때쯤 찾아오던 장마가 비교적 빠르게 잦아들면서 이른 폭염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장바구니가 점점 가벼워지고 시름만 깊어지고 있다"며 "당정이 이런 폭염으로 인한 국민 피해에 선제적이고 또 과감하게 대응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 위기로 폭염과 폭우 등 여름철 재난 재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며 "특히 117년 만에 역대급 폭염으로 국민 피해가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했다. /박태홍 기자

사람과 AI가 함께 사는 세상

사람과 기술이 어우러진
놀라운 가능성의 세상

SK하이닉스의
AI 메모리 기술이
만들어갑니다

SK hynix

호텔·가구·여행 혜택 풍성… 지출 많은 곳 할부·할인 지원

카드사 내수촉진 전략

신한카드

가전·가구 최대 50% 할인
병원·등록금 무이자 할부 지원
국내외 호텔 제휴 프로모션
일본 여행객엔 캐시백 혜택

소노시즌X신한카드 캐시백 행사 이미지. /신한카드

신한카드는 소비 밀접 업종에 전방위적인 마케팅을 펼치면서 내수침체 극복에 나서고 있다. 가전·가구 등 큰 소비를 앞둔 고객과 휴가철에 꼭맞는 혜택을 마련했다. 일시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무이자할부 혜택도 지원한다.

이달 신한카드는 5만원 이상 결제 시 무이자할부와 '슬림할부' 기능을 지원한다. 슬림할부란 카드사에서 운영 중인 부분할부를 의미한다. 할부 기간 중 일부는 소비자가 이자를 지급하지만, 나머지는 카드사가 부담한다. 상환기간을 늘리면서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다.

필수소비 영역에서 무이자할부와 슬림할부 중 선택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차량정비 ▲약국 ▲손해보험 ▲종합·일반병원 ▲대학등록금 등이다. 국세와 지방세 등 세금의 경우 최대 12개월 슬림할부만 이용할 수 있다. 단, 무이자할부나 슬림할부를 사용하면 마일리지 적립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대학마다 할부 혜택을 차등 적용하는 만큼 대학등록 할부는 별도의 점검이 요구된다.

일반소비 영역에서 할부 기능은 ▲백화점 ▲온라인 쇼핑 ▲항공사 ▲면세점 ▲호텔 등에서 이용 가능하다. 국내여행은 물론 해외여행을 떠나는 소비자를 동시에 겨냥했다. 가전과 의류·아웃도어 등 가맹점에서 할부를 제공하는 만큼 과도한 지출이 몰리는 시기에 적합하다. 가맹점별 구체적인 할부 내용은 신한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가구, 가전 영역 내 제휴 할인을 확대하면서 충성고객 확보에도 나섰다. 오는 31일까지 '이케아 카드'로 이케아 매장 5곳(강동·고양·광명·기흥·동부산) 및 오프라인 매장에서 10만원 이상 사용하면 10만원을 캐시백한다. 단, 최근 6개월 이내 신한카드 결제 이력이 없어야 한다.

별도의 PLCC(상업자표시신용카드)가 없다면 소노시즌과 씰리침대, 에싸소파 등을 이용하면 된다. 오는 27일까지 소노시즌 행사 매장에서 신한카드를 이용하면 매트리스와 프레임 등을 최대 50% 할인하며 별도의 사은품도 증정한다. 아울러 씰리침대와 에싸소파에서는 46% 할인 혹은 상품권을 증정한다. 전방위적인 마케팅보단 제휴사 혜택을 극대화했다.

국내여행을 계획하고 제휴 카드를 보유하고 있다면 신한카드와 국내 주요 호텔간의 협업 행사를 눈여겨 볼 만 하다. 투숙기간 기준 오는 8월 31일까지 롯데호텔 부산과 파르나스 제주, 파라다이스시티, 그랜드 조선 제주 등에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어 오는 31일까지 메이플드호텔 서울에서 썸머 객실 프로모션을 운영하며 오는 9월 30일까지 웨스틴조선 서울에서 특별할인을 제공한다.

해외여행은 일본 여행객을 정조준했다. 신한 JCB카드 20% 캐시백을 시작으로 일본공항 면세점 결제 2000엔 캐시백, 빅카메라 최대 17% 즉시할인 등이 올해 순차적으로 종료된다. 다음해까지 운영하는 행사로는 ▲도쿄타워 입장권(30%) ▲삿포로 신치토세 공항 버스(30%) ▲돈키호테 할인 등을 준비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15일 "일상 영역의 경우 기존에 사용하던 신용카드로 혜택을 받고 있는 만큼 한 번에 큰 지출이 발생하는 가전, 가구 등 영역에서 할인이나 경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내수 활성화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3개월 새 150명 ↓… 저축은행 직원 급감

AI 도입에 단순업무 빠르게 축소
상반기만 150명 넘게 인력 감소
"중기·부동산 심사 인력 늘릴 것"

저축은행 직원수가 올해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금융권에 디지털전환(DT) 바람이 불면서 저축은행도 대응에 나선 영향이다. 상담이나 단순심사 등의 업무를 인공지능(AI)이 대체하는 흐름이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분기말 기준 전국 저축은행 79곳에서 근무하는 임직원의 수는 9410명이다. 직전 분기 대비 153명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각각 120명, 38명씩 떠났다. 본사로 직접 채용하지 않아 집계되지 않는 아웃소싱 인바운드 인력을 포함하면 인력 감소가 추가될 것이란 관측이다.

저축은행 종사자가 3개월 사이 150명 넘게 감소한 것은 관련 집계를 시작한 이래 처음이다. 특히 비상금대출, 주부대출 등의 리테일(소매금융) 심사나 콜센터 단순상담 인력 등이 이탈할 경우 별도로 충원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디지털전환이 빨라지면서 단순업무가 자동화된 만큼 인력 이탈도 가속할 전망이다.

반면 임원의 수는 증가세로 전환했다. 저축은행 여신규모가 감소하면서 실무자보단 기업의 방향성을 논의할 베테랑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1분기 저축은행의 임원 수는 732명으로 전분기 대비 5명 증가했다. 업계에서 임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OK저축은행이다. 1분기에만 6명 증가했다.

인력뿐 아니라 점포 또한 줄어들면서 대형화를 꾀하고 있다. 지난 3월말 기준 전국 저축은행 점포수는 255곳이다. 지난 2011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영업과 상담서비스 기능만 제공하는 출장소와 사무소 등을 지점, 본점으로 통합했다. 지난 2023년 3분기를 기점으로 1년 6개월 동안 줄어드는 추세다.

저축은행이 몸집을 줄이는 주된 요인은 디지털전환이지만 업황악화 때문이기도 하다. 고금리 여파에 여신잔액을 축소하면서 수익성이 크게 나빠졌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생(PF)발 연체율 증가도 순이익에 타격을 주면서 인력감소에 영향을 끼쳤다.

향후 저축은행의 여신잔액이 상승해도 과거 1만명 수준으로 회복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단순 상담보단 기업, 부동산 대출 심사 등 고급인력을 채용할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도 인수합병 활성화를 위해선 저축은행이 효율성을 높이고 몸집을 줄이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조언한다. 금융당국 또한 인수합병(M&A)을 통한 저축은행 대형화를 유도하고 있다. 지역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체질개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다. 최근 OK저축은행의 상상인저축은행 인수전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마다 론포트폴리오의 성격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중소기업 대출 비중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라며 "점진적으론 부동산 관련 대출에 옥석을 가리는 안목도 요구되는 만큼 고급인력을 필요로하는 성향이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IBK기업은행 '감사자문단' 출범

IBK기업은행이 IBK 쇄신 계획 이행의 일환으로 '감사자문단' 위원 6명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 (왼쪽부터) 이상목 법무법인 와이케이 변호사, 김정현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 이종운 서강대학교 초빙교수, 전병목 IBK기업은행 감사, 최준묵 한국CIA위원회 위원장, 정성욱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IBK기업은행

"더울 땐 은행에서 쉬었다 가세요"

은행·상호금융권 등 1.4만개점
내달 말까지 무더위 쉼터 운영

재난 수준의 폭염이 이어지자 은행과 함께 상호금융, 저축은행도 무더위 쉼터를 제공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은행과 상호금융, 저축은행 업무가 없더라도, 낮 더위를 피해 잠시 쉬다갈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금융권 무더위 쉼터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은행권에 이어 지역의 상호금융, 저축은행 영업점도 무더위 쉼터를 개방한다고 밝혔다.

은행을 비롯해 상호금융, 저축은행도 여름철 무더위 쉼터를 제공할 예정이다. /NH농협은행

이에 따라 금융권 무더위 쉼터는 9600개점에서 1만4000개점으로 확대된다. 업권별로 나눠보면 은행권은 총 5054개의 점포에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

상호금융권(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은 지난 5월부터 4595개 영업점에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올여름 무더위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무더위 쉼터를 8667개 영업점으로 확대한다.

저축은행도 일부에서 운영 중인 무더위 쉼터를 올해부터 246개 전국저축은행 모든 영업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무더위 쉼터 운영시간은 폭염이 극심한 낮 시간 대를 포함한 지점 영업시간(통상 9~16시)다. 기간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7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운영한다. /나유리 기자 yul115@

6월 집값 상승 전환… 서울·수도권 강세

신축·재건축 중심 상승폭 확대
대출규제 여파는 이달 본격 반영

6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상승 전환하며 회복 흐름을 보였다. 서울과 수도권은 신축 및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됐고 지방은 하락세가 다소 완화됐다. 다만 이번 통계는 6·27 부동산 대책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되지 않아 규제 이후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7월 지표를 통해 확인될 전망이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5년 6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6월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는 전월(-0.02%) 대비 0.14% 상승했다. 서울은 0.95%, 수도권은 0.37% 상승했고 지방은 -0.09%로 하락했지만 하락폭은 5월(-0.12%)보다 축소됐다.

서울에서는 송파구(2.38%), 강남구(2.20%), 서초구(2.11%) 등 강남 3구를 비롯해 성동구(2.17%), 마포구(1.66%), 용산구(1.62%) 등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수도권에서는 과천(1.54%), 용인 수지(1.33%), 성남 분당(1.29%) 등이 강세를 보였다. 반면 인천은 연수구(-0.28%), 중구(-0.17%), 미추홀구(-0.11%)를 중심으로 하락했다.

전세가격지수는 전국 평균 0.03% 상승해 보합에서 상승 전환됐다. 서울(0.24%)과 수도권(0.11%)은 상승했고 지방(-0.04%)은 하락세를 이어갔다.

서울은 정주여건이 양호한 단지를 중심으로 매물이 줄며 상승세가 나타났고 강동구(0.80%), 송파구(0.69%), 영등포구(0.39%), 동작구(0.45%) 등에서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월세가격지수는 전국 기준 0.06% 상승했으며 서울(0.24%)과 수도권(0.12%)은 전월 대비 상승폭이 커졌다. 서울에서는 매매 및 전세가격 상승 여파로 월세 수요가 늘며 용산구(0.48%), 송파구(0.50%), 강동구(0.49%) 등에서 월세 상승세가 지속됐다.

하지만 대출 규제 시행 이후 임대차 시장의 흐름은 불확실하다. 전세자금대출과 전세퇴거자금대출 규제가 강화된 만큼 전세 수요의 추가 위축이나 월세 전환 가속화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과 수도권 소재 신축 및 재건축 단지는 높은 선호도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구축이나 외곽지역 단지는 상승폭이 제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전·월세는 매매가격 상승에 따른 임차수요 증가와 정주여건 우수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지원 기자 jjw13@

조선업계, 해양플랜트 수주 탄력… LNG선 이후 새 성장동력

삼성중공업 아프리카 선주와 협약
계약금 8694억… 작년 매출의 8.8%

HD현대중공업 '턴키 솔루션' 집중
올해 초 원유운반선 등 1.7조 실적

한화오션 서아프리카 FPSO에 몰두

한화오션이 건조한 세계최초 FLNG. /한화오션

국내 조선업계가 해양플랜트 분야에서 글로벌 수주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LNG(액화천연가스)선 슈퍼사이클 이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해양플랜트 사업이 부상하는 모습이다. 특히 아프리카·미국·동남아 등 주요 지역의 천연가스 개발 확대에 따라 관련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고유가 흐름과 글로벌 에너지 안보 이슈가 맞물리며 해양플랜트 사업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FLNG의 수요가 장기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고정식 LNG 플랜트 대비 인프라 구축 비용이 적고 위치 이동이 가능한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어서다.

LNG선의 수요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평가가 있으나 올해 상반기 LNG운반선 발주는 총 8척에 그쳐 전년 동기 65척에 비해 급감했다. 미국이 텍사스와 루이지애나를 중심으로 LNG 수출을 확대하고 있어 향후 수요 확대 요인은 충분하다는 분석이 따르나 업계에서는 고부가가치 선박 분야에서의 수주 역량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책적 지원 흐름도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4일 'K-조선사·기자재사 상생 간담회'를 열고 업계 성장을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정부는 LNG선 이후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들을 챙기겠다고 언급했다.

삼성중공업은 해양플랜트 사업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에는 아프리카 지역 선주와 '해양생산설비 본 계약 체결 전 예비작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으며 계약금은 8694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매출액의 8.8% 규모다. 업계에 따르면 해당 계약은 모잠비크 코랄 북부 가스전 FLNG 관련 건으로 알려졌다. 본 계약이 체결된다면 총 수주 규모는 24억달러(약 3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다.

현재까지 발주된 FLNG프로젝트는 총 10기로 파악되며 이 가운데 5기를 삼성중공업이 수주했다. FLNG의 경우 1대당 수주금액이 2조~3조원에 달할 정도로 고부가가치 설비로 매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한 것으로 관측된다.

HD현대중공업도 해양부문 강화를 위해 해양플랜트 전 주기를 아우르는 '턴키 솔루션' 전략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5월 미국 엔지니어링 전문기업 게이트에너지와 해양플랜트 EPC(설계·조달·시공) 전반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통합 공급체계 구축에 나섰다. 올 초에는 오세아니아 선사로부터 원유운반선 2척, 중동 발주처로부터 해상플랫폼 상부 구조물 1기를 수주하며 총 1조7000억원 규모의 수주 실적을 기록했다.

한화오션은 서아프리카 심해에 특화된 FPSO(부유식 생산 저장 하역 설비)를 앞세우고 있다. 해당 선박은 미국 선급 ABS와 프랑스 선급 BV로부터 공식 인증을 획득하며 경쟁력을 입증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해양플랜트는 일반 상선보다 단가가 훨씬 높고 규모나 기술 난이도 면에서도 고부가가치 선박에 해당한다"며 "글로벌 에너지 수급 변화에 따라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는 만큼 향후 조선사의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분야"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LG엔솔, 美 ESS 신규수주… 북미입지 확장

ESS 시스템통합 자회사 버테크
산타테레사 태양광·저장 프로젝트
600MW 배터리 ESS 시스템 공급

LG에너지솔루션 전력망용 ESS 배터리 컨테이너 제품. /LG에너지솔루션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ESS(에너지저장장치)향 신규 수주를 확보했다. 미국 내 최대 규모 재생에너지 개발 사업 중 하나에 ESS공급사로 참여하며 북미 지역에서의 입지를 넓히는 모습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의 ESS 시스템통합(SI) 자회사 LG에너지솔루션 버테크가 D.E. 쇼 리뉴어블 인베스트먼트(DESRI)와 엘파소 일렉트릭(EPE)이 공동 추진하는 '산타테레사 태양광·저장 프로젝트'에 600MW(메가와트) 규모 배터리 ESS 시스템을 공급한다.

버테크는 미국 내에서 생산된 배터리와 함께 자체 에너지관리 소프트웨어 에어로스를 공급하고 장기 서비스 계약을 통해 기술지원 및 유지관리까지 수행한다. 특히 이번에 공급되는 ESS는 LG에너지솔루션이 지난 6월부터 양산을 시작한 미국 미시간주 홀랜드 공장산 LFP(리튬인산철)배터리가 적용된다.

LG에너지솔루션은 잇따른 신규 수주를 통해 북미 ESS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2024년 11월에는 미국 재생에너지 기업 테라젠과 최대 8GWh(기가와트시) 규모 ESS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같은해 12월에는 미국 재생에너지 인프라 펀드 엑셀시오 에너지 캐피탈과 7.5GWh 규모 ESS 납품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버테크는 LG에너지솔루션이 지난 2022년 미국 ESS업체 NEC에너지솔루션 지분 100%를 인수하며 신설한 법인이다. ESS사업 기획, 설계, 설치, 유지·보수 등 전 단계를 아울러 고객 맞춤형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박재홍 LG에너지솔루션 버테크 대표는 "청정에너지 기술을 전력망에 도입해 지역 사회를 지원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돼 매우 뜻깊으며 미국산 배터리 시스템을 활용해 이를 실현하게 된 점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지금은 에너지저장 분야에서 중요한 전환점에 있는 시기이며 우리는 DESRI, EPE와 협력해 미국 ESS 시장에서의 모멘텀을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현정 기자

금호석화 'R&D 체제' 중장기 전략 구축

친환경 자동화 솔루션 등 강화
글로벌 수요침체 등 대응 나서

금호석유화학그룹이 글로벌 수요 침체와 중국산 공급과잉에 대응하기 위해 R&D 확대에 나서고 있다.

15일 석화업계에 따르면 금호석유화학은 친환경 자동화 솔루션 강화, 바이오·지속가능소재 확대, 고부가 스페셜티 제품 전환 등을 기반으로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재도약을 위한 초석을 견고히 다져나가고 있다.

금호석화는 중장기 전략으로 R&D 중심 체제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고부가 제품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창출하고, 선도 제품 상업화로 신성장 동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현재 전기차의 고성능 타이어에 주로 사용되는 SSBR 연구에도 주력하고 있다. 전기차 캐즘에 따른 일시적 수요 둔화세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객 맞춤형 제품(타이어 수명 증가, 연비 개선, 에너지 저감)을 개발하여 시장 리더십을 공고히 다질 예정이다. 사탕수수 기반의 바이오 원료에 핵심 고기능화 기술을 접목해 친환경과 타이어 성능을 모두 충족하는 신소재 합성고무의 파일럿 제조 기술도 확보했다.

금호피앤비화학은 제품 포트폴리오 다각화로 미래 먹거리 확보에 집중한다. 에폭시 수지 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친환경 시장의 트렌드에 맞는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최근 무용제·수용성 에폭시 수지, 바이오 기반 저탄소 에폭시 수지 등의 분야에서 연구를 강화하고 있다. /차현정 기자

기아, 오토랜드 화성에 재생에너지 공급

남동발전과 구매 계약… RE100 속도

기아가 주요 사업장에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을 확대하며 RE100 추진에 속도를 높인다.

기아는 지난 2월 체결한 한국남동발전과의 재생에너지 구매 계약(PPA)을 통해 기아 국내사업장 중 최초로 경기 오토랜드 화성에 최근 재생에너지 전력을 도입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생에너지 PPA는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 고정된 가격으로 재생에너지를 구매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전력을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아는 한국남동발전이 생산한 재생에너지 전력을 연간 약 1215MWh 공급받게 되며, 이는 58.3kWh의 배터리가 장착된 EV4 스탠다드 모델을 2만회 이상 완충할 수 있는 양이다.

기아는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오는 2040년까지 RE100 달성을 목표로 국내외 사업장에서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및 전력 자체발전 설비 구축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기아는 올해 하반기 중 국내 오토랜드 3개소에 PPA를 통한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을 지속 확대해 총 공급량을 연간 약 61GWh 규모로 늘릴 계획이다.

또 이미 PPA를 통해 재생에너지 전력을 공급받고 있는 국내 및 중국 사업장에 더해 향후 미국, 인도 사업장 등에서도 PPA를 통해 전력을 조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기아는 올해 중 국내, 미국, 인도, 멕시코, 슬로바키아 사업장에 합산 38MW 규모의 태양광 자체발전 설비를 설치해 모든 생산 거점에서 태양광 발전을 가동할 예정이며, 오는 2027년까지 설비 규모를 62MW로 확장할 계획이다.

한편 기아는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솔루션 프로바이더'라는 비전 실현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사용 외에도 ▲전동화 전환 ▲차량 내 재활용 플라스틱 적용 확대 ▲협력사 탄소 감축 교육/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차상근 기자 skc8472@

LG전자, 핏앤맥스 냉장고 최대 33% 할인

31일까지 디오스 오브제컬렉션 기획전

LG전자가 오는 31일까지 자사 온라인몰에서 LG 디오스 오브제컬렉션 핏앤맥스 냉장고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세트 모델은 최대 33%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며 다양한 결제 혜택도 함께 제공한다.

핏앤맥스는 '제로 클리어런스 힌지' 기술을 적용한 제품으로, 냉장고 문을 여닫는 부품을 본체 안쪽으로 회전하도록 설계해, 벽면과 단 4㎜만 띄워도 문을 자유롭게 열 수 있다. 별도 시공 없이도 빌트인처럼 깔끔한 주방 연출이 가능하다.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냉장고, 김치냉장고, 컨버터블 냉장고 등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다. 예컨대 613리터 냉장고와 480리터 김치냉장고를 결합하면 국내 최대 용량 라인업을 구성할 수 있다.

기획전은 LG 디오스 오브제컬렉션 핏앤맥스 냉장고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핏앤맥스는 LG전자 고유 기술인 '제로 클리어런스 힌지'를 적용해 벽면으로부터 단 4㎜만 띄우면 문을 자유롭게 여닫을 수 있는 제품이다. 별도 시공 없이도 마치 빌트인 냉장고처럼 공간 일체감을 살릴 수 있다.

제로 클리어런스 힌지란 냉장고 문을 여닫는 부품 '힌지(Hinge)'를 기존과 달리 본체 안쪽으로 회전하도록 설계, 벽면으로부터 4mm의 틈만 띄워도 냉장고 문이 벽에 부딪히지 않게 만든 LG전자만의 특화 기술이다.

/이혜민 기자 hyem@

“기술 기반 커리어 설계… 미래를 함께하는 플랫폼 될 것”

인터뷰

윤 현 준 잡코리아 대표

윤 대표, 기술 중심 조직문화 혁신
‘커리어 설계 플랫폼’ 전환 주도
AI 추천·연봉예측 등 서비스 강화

잡코리아가 전문 엔지니어 출신 CEO의 손에서 전면적인 플랫폼 전환에 나섰다.

15일 잡코리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 CTO 출신 윤현준 대표는 2023년 말 잡코리아에 합류한 뒤, 기술을 넘어 조직 전략과 산업 구조까지 개편하는 체질 개선에 착수했다. 단순히 공고를 등록하고 이력서를 올리는 채용 매칭 플랫폼의 틀을 벗고, 데이터와 AI 기반의 커리어 설계 플랫폼으로의 전환을 주도하고 있다.

윤 대표는 “이제 잡코리아는 사람의 경력 흐름 전체를 함께 설계하는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며 “구직자에게는 다음 커리어를, 기업에는 채용 전략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가시적인 변화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잡코리아는 올해 4월, AI 기반 연봉 분석 서비스 ‘원픽’을 선보였다. 사용자가 특정 공고에 진입하면, 해당 기업과 직무 기준으로 연령대별 연봉 예측 정보를 제공해, 실제 지원 가능성과 현실적인 연봉 기대치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연령, 경력, 산업군, 직무 데이터를 통합해 자동 분석하는 이 서비스는 단기간에 이용률이 급증했다는 설명이다.

윤현준 잡코리아 대표 /잡코리아

윤 대표는 이러한 기술적 접근이 “플랫폼의 중심을 단순 매칭에서 커리어 내비게이션으로 전환하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잡코리아는 내부적으로 생성형 AI 서비스 ‘룹(LOOP)’도 개발해 일부 서비스에 도입했다. 구직자가 이력서 작성, 공고 해석, 자소서 작성 관련 질문을 입력하면, AI가 문맥 기반 답변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단순 Q&A를 넘어 구직자의 커리어 컨텍스트에 따라 답변의 맥락을 조정하는 대화형 피드백 서비스로 진화 중이다. 이를 통해 플랫폼 내부 사용자 경험은 물론, 구직자의 서비스 체류 시간과 반복 이용률도 함께 개선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플랫폼 구조 혁신과 함께 조직 운영 방식도 기술 중심으로 재편했다. 윤 대표는 취임 이후 개발 조직을 기능별로 세분화하고, 서비스 기획-데이터 분석팀을 확장해 사용자 중심 피드 설계를 강화했다. 동시에 ‘빠르게 시도하고 더 빠르게 실패하자’는 원칙 아래 전사 OKR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실험 중심의 실행 문화를 뿌리내렸다.

전통적인 ‘HR 포털’ 조직에서 ‘프로덕트 기반 테크기업’으로의 정체성 전환을 위한 내부 구조 개편이 본격화된 셈이다.

업계에서도 잡코리아의 변화는 확인되고 있다. 특히 MZ세대 중심으로 플랫폼 재사용률과 피드 선호도가 높아지며, 사용자 접점과 반응성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HR 업계 관계자들은 “기술 중심의 플랫폼 설계가 이제 채용 서비스를 넘어 산업 구조 자체를 바꾸는 흐름”이라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HR시장에 금손이 나타났다”는 반응까지 나온다. 실제로 AI 추천, 연봉 예측, 실시간 피드백 시스템 등은 여타 채용 플랫폼 대비 사용자 몰입도에서 경쟁 우위를 보여주고 있다.

윤 대표는 최근 한국직업정보협회 제2대 회장에 취임하며, 민간 채용 플랫폼 간 연계와 공공 협업 체계 강화에도 나섰다. 협회는 사람인, 인크루트, 알바천국 등 20여 개 플랫폼이 참여하는 단체로, 고용노동부 등과의 정책 연계 및 직업정보 고도화를 위한 실무 협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윤 대표는 “데이터는 사유물이 아닌 공공재에 가까워야 한다”며 “잡코리아를 넘어 산업 전체가 직업 정보 구조를 함께 바꾸는 생태계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술 기반 커리어 설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잡코리아가 구직자의 다음 10년을 함께 그릴 수 있는 플랫폼으로 확장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에코프로, AI혁신실 신설

에코프로가 AI 경영을 가속화하고 있다. 지주사에 AI혁신실을 신설해 가족사들의 AI 도입 및 활용을 적극 장려 제조원가를 절감하고 R&D효율성을 향상한다는 계획이다.

에코프로는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AI혁신실을 신설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존 디지털 전환(DT)실의 기능을 확대 개편해 AI 전문가를 전면 배치했다.

AI혁신실은 에코프로 그룹의 AI 전환 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 가족사 AI시스템 도입 및 확산을 통해 제조, R&D, 사무 분야 전반에 걸쳐 AI 혁신을 추진할 예정이다.

송호준 에코프로 대표는 “AI를 업무의 파트너로 인식하고 회사 전반에 AI 마인드와 프로세스를 구축해 나가야 어떤 외부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 가격을 낮추고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AI가 제조 및 연구개발 등 경영전반에 녹아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유진기업, ‘ConLive’ 출시

유진그룹 모회사인 유진기업이 국내 레미콘업계 최초로 디지털 플랫폼 ‘ConLive’를 출시했다.

15일 유진그룹에 따르면 이번에 선보인 ‘ConLive’는 건설사와 레미콘 제조사가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 레미콘 관리 업무를 스마트하게 처리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이다.

주요 기능은 ▲품질관리 ▲출하관리 ▲일반관리 등으로 레미콘 관련 핵심 업무를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다.

유진기업 관계자는 “ConLive는 건설산업 전체의 업무 방식과 품질 관리 방식을 바꾸는 혁신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대한항공, AAM·스마트 드론 등 첨단 기술력 뽐내

〈미래항공모빌리티〉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UAM 솔루션 ‘ACROSS’ 공개
“항공우주사업 분야 도약 준비”

대한항공이 미래 스마트 모빌리티 사업 비전과 항공우주사업 기술력을 선보였다.

대한항공은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2025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WSCE)’에서 기업 가치 체계 ‘KE Way’를 중심으로 대한항공 항공우주사업의 우수한 역량과 스마트 모빌리티 관련 최신 기술을 선보였다.

부스에는 ‘Connecting for a better world(더 나은 세상을 위한 연결)’라는 기업의 존재 이유 아래, 대한항공의

‘2025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WSCE)’ 대한항공 부스 전경

기술이 적용된 미래항공모빌리티(AAM), 디지털 MRO, 스마트 드론 등 3개의 섹션으로 나눠 첨단 기술력을 공개했다.

특히 사물인터넷(IoT) 기술이 접목된 인스펙션 드론은 항공기 외관검사 시 고소작업 환경에 대한 정비사의 안전 문제를 해소하고 정비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만큼, 일부 성능을 개량해 스마트 모빌리티 사업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외에도 항공기 결함 발견 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적합한 정비 활동 계획을 제안하는 챗봇, 장기 체공이 가능해 육·해상 환경 조사 및 정찰, 물품 배송 등에 적합한 하이브리드 드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공개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전시에서 UAM 운항통제·교통관리 솔루션인 ‘ACROSS’를 공개, UAM 서비스의 혁신과 안정성을 보여준다는 방침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 참가는 대한항공의 첨단 기술과 혁신을 미래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에 적용하고, 항공우주사업 분야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양성운 기자 ysw@

중견기업 63% “하반기 투자 계획 없어”

“투자 활성화 위한 정책지원 필요”

중견기업 10곳 중 6곳 가량은 하반기 투자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계획이 ‘있다’고 밝힌 대부분의 중견기업은 국내 설비 투자 또는 연구개발(R&D)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모습이다. 중견기업들은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 개선, 물가 안정, 내수 활성화 등의 정책 지원을 절실히 원하고 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15일 내놓은 중견기업 800개사 대상의 ‘2025년 하반기 중견기업 투자 전망 조사’에 따르면 ‘투자 계획이 없다’는 62.8%, ‘투자 계획이 있다’는 37.2%로 각각 나타났다.

‘없다’는 중견기업들은 ▲불확실한 시장 상황(38%) ▲투자 불필요 업종(25.5%) ▲경영 실적 악화(19.3%) 등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

반면 ‘있다’는 ▲기존 설비 개·보수(36.2%) ▲R&D(20.5%) ▲공장 신·증설(18.8%) ▲친환경·ESG(6.7%) ▲인수합병(6%) 등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투자유형은 ‘국내 설비 투자’(69.5%), ‘국내 R&D 투자’(40.3%)가 대부분이었고, ‘해외 투자’는 17.4%로 나타났다.

하반기 투자 계획이 있는 중견기업의 79.9%는 상반기 대비 투자 규모를 ‘확대’(39.3%) 또는 ‘유지’(40.6%)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투자 규모 ‘축소’는 20.1%에 그쳤다.

투자 자금 조달 방법은 ‘내부자금 활용(49.6%)’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외에는 ‘금융권 차입’(39.6%), ‘주식·회사채 발행’(5.8%), ‘정책 금융 활용’(5%) 등이 뒤를 이었다.

이런 가운데 중견기업인들은 투자 활성화를 위해 ▲R&D·설비 투자 세제 지원 확대 등 세제 개선(37.1%) ▲물가 안정 및 내수 활성화(22%) ▲금리 인하(17.9%) ▲노동 등 경영 환경 개선(10%) ▲정책 금융 확대(9%) ▲입지 등 투자 규제 완화(3.8%) 등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견련 이호준 상근부회장은 “경제 회복의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내수 회복 기대, 주식시장 활성화, 정국 안정 등으로 일부 확대되고 있는 중견기업의 투자 전망을 가시화할 정책적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과감한 규제 해소, 세제 지원 및 정책 금융 강화 등 중견기업의 투자 확대를 견인할 실효적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국회와 적극 소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

공영홈쇼핑

10년간 7조3000억 판매

공영홈쇼핑이 10년간 중소기업, 소상공인, 농축수산물을 총 7조3000억원어치 판매했다.

공영홈쇼핑은 지난 14일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개국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영홈쇼핑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100% 우리 중소벤처기업과 농축수산 상품을 판매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2015년 7월 14일 개국했다. 지난 10년간 4600여 개의 협력업체와 함께 2만개가 넘는 상품을 판매해 누적 7조3000억원의 판로지원액을 달성했다.

우수 협력사 대표도 기념식에 함께했다. 공영홈쇼핑과 지난 10년간 함께 성장한 협력사 중 10곳을 선정해 감사패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임직원 공모를 통해 선정한 미래 비전 슬로건 ‘가치를 담다, 미래를 잇다’도 발표했다. /김승호 기자

NARA CELLAR
역시!
몬테스
MONTES ALPHA
CABERNET SAUVIGNON
VALLE DE COLCHAGUA·CHILE
ALPHA
프리미엄!
몬테스
2025 대한민국 브랜드 고객충성도 1위
BCLI
Since 1996
Korea Brand 2025 Loyalty Leader
2025 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
와인 부문 2년 연속 1위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정보보호에 5년간 1兆 투자… “선제적 보안 새 기준 구축”

KT 고객 안전·안심 브리핑

‘K-시큐리티 프레임워크’ 중심 운영
24시간 작동 사이버보안센터 구축
보이스피싱 등 AI 기술 접목해 대응
‘클린존’ 서비스로 기업보안 강화

KT 정보보안실장 황태선 상무가 KT 고객 안전·안심 및 정보보호 브리핑에서 ‘KT 정보보호 현황 및 향후 강화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KT

KT가 5년간 1조원 이상을 정보보호 분야에 투자한다. 통신사 중 유일하게 연간 1000억원 이상을 정보보호에 투자해온 KT는 이번 결정을 통해 고객 신뢰를 기반으로 한 통신기업으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KT는 15일 서울 광화문 근처 센터포인트에서 열린 ‘KT 고객 안전·안심 브리핑’을 통해 향후 5년간 정보보호에 1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보안 시스템 고도화와 통합 관제 체계 구축 등을 통해 고객이 안심할 수 있는 통신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투자계획은 ▲AI 모니터링 체계 강화 ▲글로벌 협업 및 진단 컨설팅 확대 ▲제로트러스트(Zero Trust) 체계 완성 ▲보안전담인력 확충 등 네 가지 핵심 과제로 나뉜다.

특히 KT는 자체 개발한 ‘K-시큐리티 프레임워크’를 중심으로 선제적 보안 모델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프레임워크는 침투 테스트를 담당하는 ‘K-오펜스’와 통합 보안 대응체계인 ‘K-디펜스’로 구성된다.

KT 황태선 정보보안실장(상무)은 “정기적 모의해킹과 취약점 개선활동을 정례화하고 3자 정보보호 점검을 통해 외부 위협요소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KT는 전사적 기술 역량과 관제 인프라를 총동원해 국내 최초로 IT와 네트워크를 통합한 사이버보안센터를 구축한다. 이 시스템은 365일 24시간 작동하는 전국 단위 네트워크 관제 인프라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황 상무는 “2년 전부터 선제적으로 추진해온 ‘제로트러스트’ 체계를 보강해 사용자·디바이스 검증과 최소 권한 부여 원칙을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탐지와 스팸 대응에도 AI 기술을 접목한다. KT는 올해 하반기, 통신사 최초로 ‘KT AI 보이스피싱 탐지 2.0’을 상용화할 예정이다. 해당 서비스는 화자인식과 딥보이스 탐지 기능을 통해 AI 위조 음성을 판별하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협력해 학습한 2만5000건 이상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시간 문맥 분석을 수행한다.

현재 탐지 정확도는 통신사 최고 수준인 91.6%이며, “상반기에만 약 710억원 규모의 범죄 피해를 사전에 차단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KT는 설명했다. 2.0 버전에서는 정확도를 95%까지 끌어올리고 범죄 피해 예방 효과를 연 2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스팸 문자 차단에도 AI가 투입된다. 황 상무는 “AI가 등록한 키워드는 전체 차단 키워드의 5.5%에 불과하지만 전체 차단 건수의 45.9%를 차지했다”며 높은 효율성을 강조했다. 또한 악성 URL·발신번호·발송사업자를 실시간으로 탐지 및 차단하는 ‘AI 클린메시징시스템(AICMS)’도 자체 개발해 운영 중이다. 해당 시스템 도입 후 일평균 스팸 발신번호 차단률은 66%, 문자 차단 건수는 188% 증가했다.

기업 보안 서비스도 강화된다. KT는 자체 보안 위협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클린존’ 서비스를 통해 디도스(DDoS) 공격을 방어하며, “타사 대비 2배 이상의 디도스 방어용량을 해외 관문구간에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내 방어용량을 두 배 이상 확충하고, 고객이 직접 위협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대시보드도 8월 중 선보인다.

또한 ‘AI 메일보안’ 서비스는 AI가 메일 발신자·본문·첨부파일·URL 등을 실시간 분석해 피싱·랜섬웨어·APT 공격을 탐지 후 차단한다. 지난 1년간 약 1만5000건의 악성 메일을 차단했으며, 9월에는 대형 언어모델(LLM)을 활용한 위협 리포트 자동 요약 기능도 도입될 예정이다.

KT의 이현석 고객부문장 부사장은 “지금 이 정도면 괜찮다는 안일한 생각으로는 더 이상 고객의 신뢰를 지킬 수 없다”며 “KT는 고객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기존의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선제적 보안의 새로운 기준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이통3사, 차별화된 할인·혜택으로 고객유치 나선다

SKT 티빙 3개월 무료이용권 제공
팝업부스서 멀티태스킹 체험 등 진행

KT KT닷컴서 ‘1TB 상품’ 단독판매
개통 시 출고가 최대 50% 선감면

LG U+ AI 서비스 6개월 무상 제공
갤럭시 워치 36개월 할부금 전액할인

갤럭시 Z 시리즈 신제품을 살펴보는 사람들의 모습. /SKT

통신3사가 일제히 삼성전자의 ‘갤럭시 Z’ 시리즈 사전예약에 돌입했다. 각사는 고가 프리미엄 단말에 맞춰 콘텐츠 구독, 디바이스 할인, AI 서비스 등 차별화된 혜택을 앞세워 고객 확보에 나섰다.

1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3사는 오는 21일까지 갤럭시 Z 시리즈 신제품 사전예약을 진행한다. 개통은 22일부터 시작된다.

SK텔레콤은 사전예약 개통 고객 전원에게 티빙 광고형 스탠다드 3개월 무료 이용권을 제공한다. 쿠폰은 9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T월드 매장에서 개통한 고객에게는 삼성 정품 슬림 케이스도 증정된다.

또한 SK텔레콤은 롯데시네마 월드타워·건대입구점·코엑스몰 등지에서 팝업 부스를 운영해 멀티태스킹 체험과 이벤트를 진행한다. 현장에서 사전예약을 완료하면 영화상품권, 스타벅스 쿠폰 등의 사은품이 제공된다. 단말 저장용량 업그레이드(더블 스토리지) 혜택도 함께 제공되며, 갤럭시 Z 폴드7 1TB 모델은 15만8400원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공식 온라인몰 T다이렉트샵에서는 갤럭시 워치8 시리즈 15만원 할인권, 티다문구점 10만원 이용권(선착순 500명), 광복 80주년 기념 액세서리 기프트(1000명 추첨) 등을 제공한다. 삼성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로 결제 시 24개월 무이자 할부가 적용되며, 삼성카드로 결제한 고객 중 선착순 700명에게는 최대 10만원 캐시백이 제공된다.

KT는 KT닷컴 단독 판매 상품인 1TB 모델을 앞세워 사전예약을 진행한다. 사전예약 고객에게는 기본 저장 용량 업그레이드(더블 스토리지) 혜택이 제공되며, 삼성닷컴 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워치8 10% 할인 쿠폰과 액세서리 30% 할인 쿠폰이 함께 제공된다. 콘텐츠 구독 혜택으로는 구글 AI 프로 6개월, 윌라 3개월 무료 이용권이 포함되며, 구매 고객 전원에게는 정품 보호필름 1회 부착 서비스가 지원된다.

KT는 단말기 구매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미리보상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개통 시 출고가의 최대 50%를 선감면하는 구조로, 24개월 뒤 기기 반납과 교체를 조건으로 한다. 가입 고객에게는 최대 60만 원 보장 보험도 함께 제공된다.

KT닷컴에서는 5G 요금제 가입 시 최대 24개월간 월정액 7% 할인, 중고폰 보상 최대 25만 원 추가, 단말 쿠폰 최대 10만원 적용 등 온라인 전용 혜택이 제공된다. 사은품은 갤럭시 버즈 FE, 정품 배터리팩 등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친구 추천과 번호이동 고객에게는 네이버페이 상품권 등 추가 혜택도 주어진다.

KT는 단말 출시일인 22일, 다양한 가전제품을 할인 또는 무상 제공하는 ‘가전구독 초이스 요금제’도 선보인다.

LG유플러스는 갤럭시 Z 폴드7과 Z 플립7 사전예약 고객에게 AI 서비스 특화 혜택을 제공한다. ‘유독 픽(Pick) AI’를 통해 AI 검색 서비스 ‘라이너’와 디자인 도구 ‘캔바’를 6개월간 무상 이용할 수 있으며, 익시오(ixi-O) AI 통화 앱이 선탑재돼 보이스피싱 탐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디바이스 혜택으로는 갤럭시 워치8 40㎜ 모델의 36개월 할부금 전액 할인 혜택이 있으며, 유플러스닷컴을 통한 사전예약 고객에게는 최대 20만원 쿠폰, 삼성카드 최대 9만원 캐시백, 중고폰 반납 시 신세계상품권 15만원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추첨을 통해 순금 1돈, 네이버페이 5만원권, 팥빙 젤라또 파르페 등 경품이 제공된다.

‘유플러스LIVE’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사전예약 혜택을 소개하며, 신동·곽범·가요이 키우기 등이 출연한다. 오프라인 체험존은 ‘일상비일상의틈byU+’에 마련되며, 유플위크 기간 전국 매장에서 체험 및 사전예약을 마친 고객에게는 커피 7잔이 증정된다.

또한, ‘폰교체 패스’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출고가의 최대 40%를 보장하는 ‘뉴 갤럭시 AI 구독클럽’이 함께 제공되며, 사전예약 고객 대상 ‘미리드림’ 서비스로 단말 조기 수령도 가능하다. 슬림 케이스 사은품, 멤버십 신규 고객 웰컴 혜택, 유플투쁠 특별 프로모션 등도 함께 운영된다.

/김서현 기자

LG U+, 공항철도에 ‘이음 5G’ 구축

철도 통신체계 5G-R 전환 기반 마련
대용량 데이터 전송·IoT 설비관리 가능

LG유플러스는 공항철도에 5G 특화망(이음 5G)을 구축하고, 이를 국내 철도 운영기관 최초로 상용화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통해 철도 통신체계의 5G-R 전환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구축으로 공항철도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5G 특화망을 실제 운용에 적용하게 됐다. 공항철도는 수도권 주요 교통수단으로, 하루 평균 이용객 28만 6000여명(2025년 상반기 기준), 누적 이용객 11억명을 기록 중이다.

LG유플러스는 공항철도 검암사옥과 용유 차량기지에 특화망 장비를 설치하고 준공검사를 완료했다. 양측은 연내에 열차 운행정보를 실시간 송수신하는 차상 장비를 5G 기반으로 개조·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보안 강화를 위해 양자내성암호(PQC) 기반 유심(USIM)을 국내 처음으로 적용했다.

그동안 공항철도는 LTE-R 무선망을 사용해 왔으나, 5G 특화망을 도입하면서 대용량 데이터 전송과 사물인터넷(IoT) 기반 설비 관리 등이 가능해졌다.

/김서현 기자

NHN두레이, SaaS 글로벌 AI 서비스 활용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금융 내부망서 해외 LLM 사용 가능

엔에이치엔(NHN)두레이는 국내 협업툴 가운데 최초로 금융 내부망에서도 해외 리전에 위치한 초거대 언어모델(LLM)까지 직접 연동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성과는 국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업계 첫 사례로, 보안·정책적 제약을 넘어 글로벌 생성형 AI 서비스 활용이 가능한 환경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회사 측은 강조했다.

이번 연동은 우리금융그룹에 가장 먼저 적용된다. NHN두레이는 올 3월부터 우리금융그룹의 공식 협업툴로 도입됐다.

/김현정 기자 hjk1@

초대형 IB 모험자본 투자 의무화… 부동산 쏠림 막는다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
발행어음·IMA 조달자금의 25%
中企 등 국내 모험자본에 투자하고
부동산 자산 한도 단계적 하향조정

〈종투사 지정요건 개선내용〉 /금융위원회

	현 행	개 선
자기자본 요건	일회성으로 요건 충족 가능	최근 2개 사업연도 각 결산 기준 연속 충족 필요
사업계획, 사회적 신용, 대주주 요건	사업계획, 사회적 신용, 대주주 요건 無	사업계획*, 사회직 신용요건 신설 (8조원 종투사는 대주주 요건도 신설) *사업계획의 타당성 평가를 위한 외부평가 위원회 구성·운영 근거 추가
단계별 지정	종투사 각 단계별 업무영위 최소기간 無	종투사 각 단계별 최소 2년 이상 영위해야 다음단계 지정 가능

정부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부동산 자산 운용 한도를 축소하는 한편 모험자본 공급 의무를 부여키로 했다. 초대형 투자은행(IB)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생산적인 금융 분야로 자금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종투사의 기업금융 역할을 강화하고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금 흐름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오는 8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모험자본 25% 의무 투자…IMA는 원금지급형으로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종투사는 전체 운용자산 중 발행어음과 IMA를 통해 조달한 금액의 25%를 국내 모험자본에 투자해야 한다. 모험자본의 범위에는 중소·벤처기업, 벤처캐피탈(VC), 신기술사업금융회사(신기사),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매입, A등급 이하 채무증권(대기업 계열사 제외), 중견기업, 상생결제, 벤처펀드, 하이일드 펀드, 소부장펀드, 모태펀드 투자가 포함된다. 의무 투자비율은 2026년 10%, 2027년 20%, 2028년 25%로 3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상향된다.

반면, 종투사가 운용할 수 있는 부동산 관련 자산의 한도는 현재보다 크게 낮아진다. 2026년 15%, 2027년 10%로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해 기존 부동산 중심의 수익 구조에서 탈피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종투사의 IB 수익 중 절반 이상이 PF 채무보증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IMA의 상품 특성도 명확히 규정했다. 고객이 예탁한 자산을 모아 운용해 수익을 배분하는 IMA는 '원금 지급형 상품'임을 법령에 명시하고, 만기 1년 이상 자산으로 70% 이상을 구성해야 한다. 투자 중도해지 또는 신규 가입 시 적용되는 기준은 시가 또는 공정가액으로 정해진다.

투자자 보호와 리스크 관리를 위한 규제도 강화된다. IMA 운용 시에는 자전거래나 증권사 고유재산과의 거래가 제한되며, 5%의 시딩 투자(운용 초기에 증권사가 자기자금을 넣는 구조)와 수탁금 원본의 5% 이상 손실충당금 적립이 의무화된다. 운용 내역은 고객에게 정기적으로 통지해야 하며, 손실충당금이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IMA 자산은 NCR(순자본비율) 산정 시 50%만 반영된다.

◆종투사 진입요건 강화…단계별 운영기간도 명문화

이번 개정안은 종투사의 지정요건도 대폭 강화했다. 기존에는 인가 신청 시점에 자기자본 요건을 한 번 충족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최근 2개 사업연도 기준으로 연속 충족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사회적 신용도, 대주주 적격성 등 질적 평가 항목도 신설된다.

또 자기자본 단계별로 최소 2년 이상 운영한 뒤에야 상위 자격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3조원 이상 종투사로 지정된 후 2년이 지나야 발행어음 사업(4조원 이상) 인가를 신청할 수 있고, 이후 또 2년이 지나야 IMA 사업(8조원 이상)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8조원 이상 종투사 지정 시에는 대주주 변경 인가 수준의 심사 요건도 새로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장은 외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밖에 증권업 관련 제도 정비도 함께 추진된다. 증권사 고유분 외화증권에 대한 집중예탁 의무를 폐지해 외화증권을 담보로 대차거래에 활용할 수 있게 하고, 파생결합증권·사채 조달자금과 고유자산 간 내부대여 한도는 2026년 20%, 2027년 10%로 제한된다. 대차거래 중개업 인가 시에는 매매체결 전문인력 1인, 전산전문인력 4인 등 전문 인력 요건도 신설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그간 부동산에 집중됐던 증권사의 자금 운용 방향을 혁신·벤처 등 생산적 분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라며 "증권사가 기업금융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보다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 기반을 정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불닭흥행 지속… 삼양식품 주가 천장 뚫렸다

3분기 불닭볶음면 美·유럽 본격수출
목표주가 150만원→180만원 상향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 불닭볶음면이 진열되어 있다. /뉴시스

삼양식품의 몸 값이 치솟고 있다. '불닭볶음면' 한 그릇이 만든 글로벌 열풍에 힘입어, 이젠 '면비디아' '불닭반도체'라는 별명까지 따라붙는다. 글로벌 공급 확대 기대감 속에 증권가도 실적 전망을 줄줄이 상향 조정하고 있다.

15일 다올투자증권은 삼양식품의 내년 실적 호조 기대가 커지고 있다며 목표주가를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올렸다. 이다연 연구원은 "삼양식품의 2분기 영업이익은 전 분기 대비 5% 감소한 1272억원으로 시장 기대치에 부합할 것"이라며 "5월 진행된 정규 급여 인상, 신규 브랜드 관련 마케팅비 및 관세 영향으로 전 분기 대비 소폭 감익이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해당 2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기존 추정치(1355억원) 대비 6% 하향 조정된 수치다.

앞서 한국투자증권은 삼양식품 목표주가를 143만원에서 180만원으로, NH투자증권은 13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한화투자증권은 170만원, DS투자증권은 160만원을 제시했다. 권우정 교보증권 연구원은 "2026년 예상 PER 20배를 적용했지만, 일본 도요수산처럼 25배까지 밸류에이션 상향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강은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불닭볶음면의 미국·유럽 수출이 3분기부터 본격화되며 실적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며 "1분기엔 현지 물량 부족으로 매출이 제한됐지만, 하반기엔 빠른 회복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류은애 KB증권 연구원은 "공급 능력이 당초 예상보다 20% 많은 연간 8억 3000만 식 수준"이라며 "미국 코스트코 등 유통처 확대와 제품 믹스 개선으로 이익률 상승 여지도 크다"고 말했다.

해외 투자자의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블룸버그는 최근 칼럼에서 삼양식품의 브랜드 가치를 80억달러(약 11조원)로 추산하며 "미국 젊은 세대가 색다른 맛을 좇으며 불닭 열풍이 확산 중"이라고 소개했다. 틱톡 내 관련 해시태그 수는 1년 전 대비 250% 급증했으며, 불닭 까르보나라의 미국 1분기 매출은 전분기 대비 20% 늘었다. /허정윤기자

신용 따라 주관사 갈린다… 회사채 '온도차'

NH투자증권·삼성증권
우량 신용도 바탕 주관사 4곳 내외
CJ CGV, 1000억 회사채 공모에
주관사 10곳 선정 '방어적 전략'

회사채 시장을 통해 자금 조달에 나선 기업들이 주관사 선정에서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신용 등급이 높고 재무구조가 탄탄한 곳들은 자체 브랜드로 밀어 붙여 기관투자자 유치에 나서고 있다. 반면 시장 신뢰가 약한 기업들은 여러 주관사를 앞세워 회사채 시장을 노크한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지난 14일 3년물 1500억원, 5년물 500억원 등 총 20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앞두고 수요예측을 시행했으며, 그 결과 총 1조8400억원의 주문을 확보하며 모집액(2000억원)의 9배가 넘는 투자 수요를 끌어모았다. 회사 측은 최대 3000억원까지 증액 발행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NH투자증권의 회사채 대표주관사는 미래에셋·삼성·신한투자·SK증권 등이다. NH투자증권 회사채의 흥행 성공 배경으로는 'NH투자증권의 우수한 신용등급(AA+)'과 '자기자본 규모', '사업 포트폴리오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신뢰' 등이 꼽힌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시장 반응이 좋을 것으로 기대되는 딜은 인수단을 굳이 많이 구성할 필요가 없다"며 "미매각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다면, 내부 배정을 통해 수수료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이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증권도 17일 수요예측을 앞두고 있다. 3년물 1000억원, 5년물 500억원 등 총 15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이 예정됐으며, 대표주관사는 신한투자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SK증권 등으로 4곳 내외로 구성됐다. 두 곳 모두 AA+ 등급이라는 우량 신용도를 바탕으로 시장 수요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낸 셈이다.

반면 CJ CGV(A-)는 정반대 전략을 택했다. 1000억원 규모의 회사채 공모(수요예측일 21일)에 10개 주관사를 선정했다. CJ CGV는 지난 6월 수요예측 실패한 재수생이다. 시장에서는 기관 불안을 반영한 '방어적 전략'으로 해석한다. /허정윤 기자

유안타증권, 사내챗봇 'Y-BOT' 구축

규정·매뉴얼·지침 등 필요정보 제공

유안타증권은 임직원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AI) 기반의 대규모 언어 모델(LLM)을 활용해 전사 업무를 보조하는 사내 챗봇 시스템인 AI 챗봇(Y-BOT)을 자체 구축했다고 15일 밝혔다.

와이봇(Y-BOT)은 사내 규정, 업무 매뉴얼, 지침 등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해 임직원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챗봇이다. 일반적인 질의응답 기능을 넘어 문서양식 생성, 내용 분석 및 번역 등 범용적인 업무 지원 기능도 제공해 직원들의 실질적인 업무 편의성 향상에 기여한다. 또한 코드 분석 및 수정, 테스트 등 시스템 개발을 지원해 주는 코드 어시스트 기능도 포함돼 있어 사내 프로그래밍 업무를 효율화했다.

유안타증권은 지난해부터 자체인력으로 금융업무에 특화된 인공지능 언어모델(sLLM)을 온프레미스(On-premise) 방식으로 사내 서버에 직접 구축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AI 활용 환경을 마련했다. 향후 인프라를 확장해 AI 활용 문화 정착 및 고도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원관희 기자 wkh@

예탁결제원, 상반기 채권·CD 314조 발행

전년 동기 대비 18.8% 증가

한국예탁결제원은 올해 상반기 채권과 양도성예금증서(CD) 전자등록발행 규모가 314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8.8% 증가한 수준이다.

채권 발행 규모는 약 279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8% 늘었다. CD 발행 규모는 약 34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4% 증가했다.

종류별 전자등록발행 규모를 보면 금융회사채가 31.8%, 특수채가 31%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일반회사채(15.3%), CD(11%), 유동화SPC채(5.4%), 국민주택채(2.4%) 순이었다. /원관희 기자

여름 먹거리 가격 줄줄이 상승세
과일·감자·계란 수급조정 총력

농식품부, 농축산물 물가 대응
폭염·일조량 감소로 수박값 급등
양구·봉화 물량 이달 하순 출하
고랭지감자 부진에 수입 추진
계란, 생산량 늘어 가격 안정
닭고기 수요 증가에 태국산 대체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의 한 대형마트에 수박 상품이 진열돼 있다. /뉴시스

먹거리 물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최근 가격이 치솟은 수박의 수급동향과 관련해, 이달 하순을 기점으로 출하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과일을 비롯한 여름철 농축산물의 수급안정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15일 올해는 여름 농축산물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기상 여건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소비자 부담도 최소화하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한영 농식품부 대변인은 이날 언론설명회를 통해 "오늘 아침 당·정 간담회에서도 폭염에 따른 농축산물 물가 안정방안이 집중 논의됐다"며 "당은 물가안정 TF(전담반)를 구성해 대응 중이고 정부도 현장 상황점검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 중순 들어 수박 값이 큰 문제다. 수박은 폭염에 따른 수요 증가 및 5~6월 일조시간 감소에 따른 출하 지연 탓에, 전년대비 높은 가격대를 보이고 있다.

출하물량 확대 시기는 7월 하순으로 보고 있다. 농식품부는 "작황이 양호한 강원 양구, 경북 봉화, 전북 고창 등에서 출하 물량이 이달 하순부터 확대되고, 충북 음성 2기작 수박도 출하가 시작되면 공급이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사과와 배, 복숭아, 포도 등은 지난달 이후 기온이 상승해 생육을 회복하고 있어, 향후 공급 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봤다.

감자는 현재 유통 중인 노지 봄감자(생산량의 65%)의 경우 평년 대비 2% 증가해 수급에 문제가 없다. 다만 고랭지감자는 면적이 줄고 가뭄으로 생육부진을 겪고 있다.

농식품부는 고랭지감자 회복을 위해 관수 지도와 함께 계약재배 물량 1만2000톤(t)을 시장에 공급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저율관세(TRQ)로 물량 최대 3200t도 수입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다음주 입찰을 시작해 4분기 중에는 감자를 수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축산물은 폭염으로 일부 가금류가 폐사했는데, 농식품부는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계란은 일평균 생산량이 4821만 개로 평년보다 높고 가격도 점차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계란자조금을 활용해 납품단가를 최대 1000원(30구 기준) 정도 낮추는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산란계 고온피해는 4만 마리 정도로, 8월 생산량은 작년 대비 조금 감소하겠지만 평년 대비로는 5% 증가할 것"이라며 "최근 3개년 7~8월 계란수요는 연평균 대비 6.2%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복날 등으로 계절수요가 증가하는 닭고기는 전·평년 수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브라질산 수입 차질에 대비해 태국산 4000t이 7월 중순부터 공급되고, 8월부터 브라질산도 정상 공급 예정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벤츠·BMW 등 8만대 배출가스 결함 리콜

환경부, 51개 차종 부품결함률 초과

메르세데스-벤츠 등 5개 자동차 제작·수입사의 차량 가운데 배기가스 관련 부품에 결함이 발생한 8만2537대를 대상으로 의무적 결함시정(리콜)이 실시된다.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리콜 승인 현황을 집계한 결과, 자동차 제작·수입사 5곳의 51개 차종에 대해 의무 리콜을 시행하거나 이를 앞두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리콜 대상인 제작·수입사는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BMW 코리아 ▲GM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포드세일즈서비스 코리아 ▲한국GM 등이다.

해당 제작·수입사의 차량 51종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결함률이 일정 수준 이상 축적돼 리콜 명령을 받았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같은 해에 판매된 동일 차종의 특정 부품에 결함건수가 50건 이상이고, 결함률이 전체 판매 대수의 4% 이상일 경우 의무적으로 결함을 시정하도록 한다.

이번 의무적 리콜 차량의 주요 결함을 살펴보면 BMW 520d는 응축수 형성으로 센서류에 손상이 있었다. 벤츠 S580 4MATIC에서는 연료 공급라인의 호스 연결부에서 연료가 흘렀다.

포드 링컨 코세어 2.0 등은 정화조절 벨브 내부 부품이 손상돼 증발가스가 누설됐다. 또 한국GM 크루즈 1.8 등은 고온에서 정화용 촉매가 파손됐고, GM아시아 캐딜락 CT4 등은 정화펌프 작동에 불량이 있었다.

해당 차량의 제작·수입사에서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손상 부품 교체 등의 방법으로 시정할 예정이다.

의무 리콜 대상 외에도 기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등 5개 제작·수입사에서도 자체적으로 확인한 총 16차종 4만2605대에도 자발적 리콜이 시행된다. 자체적 리콜 대상 차량을 소유한 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제작·수입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세 정부 에너지정책 차질없이 추진"

한전,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점검
전력망 신뢰도·안전성 등 강조

한국전력이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과 재생에너지 연계 확대 등 이재명 정부 에너지정책 이행에 박차를 가한다.

15일 한전에 따르면 김동철 사장은 14일~16일까지 사흘간 호남과 강원 지역 주요 전력망 건설현장을 잇따라 방문해 송변전 설비 공정 상황을 점검하고, 여름철 전력수급 대응체계를 직접 챙겼다.

이번 현장 점검은 한전이 추진 중인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RE100 기반 확충, 전력 피크 대응력 확보 등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에 맞춰 이뤄졌다.

에너지 고속도로는 재생에너지 발전이 집중된 지역과 수도권·첨단산업단지를 고압 송전망으로 직접 연결하는 국가사업이다. RE100 대응, 첨단산업단지 전력 안정성 확보, 지역 간 계통 불균형 해소 등을 목표로 한 새 정부 핵심 에너지 공약이다.

김동철 한전 사장이 지난 14일 신장수변전소를 방문해 공정 진행 상황과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한전

첫 날인 14일 김 사장은 호남권 신장성변전소와 신장수변전소 건설 현장을 찾아 345키로볼트(kV) 변전소의 공정 진행 상황과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했다.

김 사장은 "해당 변전소들은 호남권 재생에너지를 중부권 계통과 연계하는 국가기간 전력망의 허브이자 핵심 인프라"라며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의 출발점인 만큼 적기 준공과 품질 확보를 통해 전력망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전기안전공사

BESS 안전성 높인다
극한환경 실증 착수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추진하는 '극한 환경 대응 차세대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 고신뢰성 검증 및 안전기술 개발' 사업이 본격화된다.

전기안전공사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과 지난 10~11일 이 사업의 착수회의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회의에는 삼성SDI, 서울대 산학협력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이솔루션 등 17개 참여기관 소속 연구원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사업은 영하 40도에서 영상 80도에 이르는 극한환경에서도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BESS 기술의 실용화를 목표로 한다.

BESS는 배터리에 저장한 에너지를 필요 시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태양광·풍력 등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의 활용도를 높이는 핵심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가스公, '온누리 실버 나눔' 본격화

지역 어르신에 일자리 제공
독거노인·장애인 반찬 지원
복지 사각지대 해소 앞장

한국가스공사가 노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 복지 증진을 동시에 겨냥한 대표 사회공헌 사업 '온누리 실버 나눔'을 본격 가동했다.

가스공사는 15일 대구지역 내 취약계층의 결식 예방을 위한 '2025년 온누리 실버 나눔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취업을 희망하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정기적으로 밑반찬을 조리해 취약계층에 직접 전달하고 안부까지 확인하는 식생활·돌봄 복합형 일자리 모델이다.

올해 가스공사는 총 2억 원의 기부금을 지원하며, 대구사회복지협의회가 사업을 주관한다.

대구지역 10개 사회복지시설이 사업에 참여하며, 대상자 모집을 마친 상태다. 온누리 실버 사업단은 오는 12월까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기존의 독거노인 중심에서 장애인과 아동 등으로 확대해 사업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가스공사는 2019년부터 해당 사업을 꾸준히 이어오며 지금까지 어르신 291명에게 일자리를, 취약계층 899명에게 건강 밑반찬을 제공했다.

가스공사는 본격 활동에 앞서 대구시 위생정책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등과 협력해 밑반찬 조리시설에 대한 합동 위생점검도 실시했다. 조리환경과 식재료 보관, 복장 착용 등 위생 전반에 대한 점검과 현장 피드백이 이뤄졌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노인 일자리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동시에 고려한 고효율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국민 체감형 ESG 실천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농협, 전국서 폭염·재난 대비 나눔활동

'안전한 여름나기' 실천

농협중앙회는 전국 임직원이 취약계층 지원과 재난 예방을 위한 다양한 나눔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기록적인 폭염과 여름철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한 여름나기'를 실천테마로 정했다고 밝혔다.

7월 테마의 첫 번째 중점활동은 '무더위 극복을 위한 취약계층 나눔활동'이다.

농협은 건강식, 생수, 선풍기 등 폭염에 대비한 필수물품을 지역 내 취약계층에게 전달하고 있다. 또 그늘막을 설치하거나 농협 사무소를 무더위 쉼터로 개방해 어르신과 장애인, 저소득가정 등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게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두 번째 중점활동은 '재난·재해 대비 안전점검 및 예방 캠페인'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실시 중이다.

태풍과 집중호우 등 여름철 자연재해에 대비해 농협 임직원들이 지역 내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또 재난·재해 예방수칙과 안전 매뉴얼을 안내하는 캠페인도 활발히 벌이고 있다.

지난 7일 농협중앙회 당진시지부와 관내 농축협은 '행복도시락 삼계탕 나눔행사'를 열었다. /세종=김연세 기자

PURSOL

숲의 청정한 공기, 자연을 닮은 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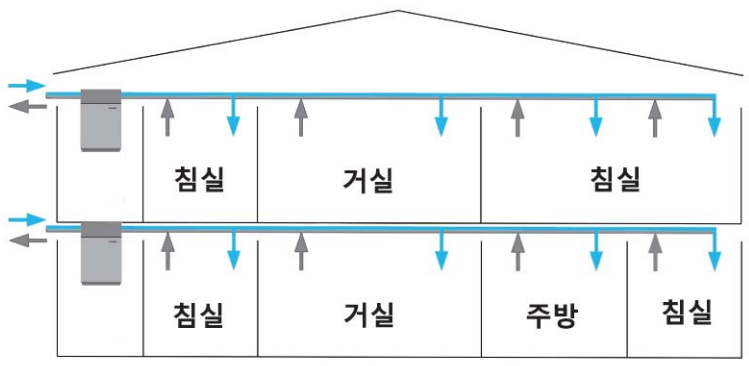
'숲속 집처럼'

창문을 열지 않아도
미세먼지, 황사 걱정없이
숲속 공기가 집안에 들어온 듯,

환기, 이제는
더 쉽고 편안하게

좌우 도어 방식으로 간편한 필터 교체순서

[신개념] 키친 수납함 스타일로 제작된 도어형 열회수 환기청정기



아파트, 주택, 사무실, 카페, 독서실 등
다양한 공간에 최적화된 환기 시스템

[특장점]

- **누구나 쉽게, 언제든지!**
  공구 없이 도어를 간편하게 열어 필터 상태를
  직접 자주 확인할 수 있음.
- **1분 셀프 필터 교체!**
  복잡한 절차 없이 쉽고 안전하게,
  목 디스크 걱정 없는 편리한 교체 가능.
- **사계절 내내 에너지 절감!**
  냉방과 난방 효율을 높이는 최고급 전열교환소자가
  내장되어 뛰어난 열교환 성능을 자랑.
- **공기 정화는 기본, 탈취까지 완벽하게!**
  H13 등급의 항바이러스 헤파 필터와 탈취 기능까지
  갖춘 대용량 복합 항바이러스 헤파 필터로
  미세먼지, 황사 걱정 없이 쾌적한 환기를 제공.
- **A/S 없이도 OK!**
  필터 교체부터 유지관리까지 스스로 해결!

www.pursol.co.kr
푸르솔 010. 8899. 8651

부산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사업' 확대

하반기 4805대 지원신청 접수
차량 가격에 따라 보조금 차등
'아이조아 부산조아' 지속 운영

부산시는 2025년 하반기 '전기 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사업'을 확대 진행해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전기 자동차 보급을 가속화한다고 밝혔다.

하반기 지원 대상은 전기 자동차 4805대로 승용차 3913대, 화물차 722대, 버스 160대, 어린이 통학차 10대에 대해 보조금 지원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상반기 성과를 보면 2024년 같은 기간 대비 58% 증가한 2895대를 보급했다. 세부적으로 승용 2413대, 화물 442대, 버스 40대가 포함됐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 보급 물량을 대폭 늘렸다.

보조금 지원 규모는 상반기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승용차는 대당 최대 810만원, 화물차는 최대 1380만원, 어린이 통학차는 최대 1억350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구매 차량 가격에 따라 보조금은 차등 적용된다.

부산시청 전경

이번 하반기부터 개인사업자 지원 기준이 개선됐다. 기존에는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개인이 전기 자동차 구매 시 1대만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개인 사업자 자격과 개인 자격으로 각각 1대씩 총 2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차량 유지 관리 비용 절감으로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시는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아이조아 부산조아' 제도와 '지역 할인제'를 지속 운영해 전기 자동차 보급 확산을 도모한다.

2025년 전국 첫 시행 중인 아이조아 부산조아는 출산 가정 대상 승용 전기 자동차 구매 지원으로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부산 인구 감소 및 출산 증대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한다.

지역 할인제는 시민이 참여 업체의 전기 자동차를 구매하면 업체에서 최대 50만원을 할인하고, 시가 최대 5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제도다. 상반기 물량 2000대가 조기 소진돼 하반기 추가 2000대를 확보했다. 참여 업체도 상반기 3개 사에서 현재 10개 사로 증가해 시민 선택권이 확대됐다.

전기차 외에도 온실가스 저감, 소음 등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하반기 '전기 이륜차 구입 보조사업'을 현재 접수하고 있다. 시는 상반기 전기 이륜차 144대를 보급했으며 하반기에는 기존 상반기 잔여 물량을 포함해 총 856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전기 이륜차 보조금은 차량 유형과 성능에 따라 경형 최대 140만원, 소형 최대 230만원, 중형 최대 270만원, 대형 최대 3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이병석 환경물정책실장은 "이번 하반기에도 승용차량의 재구매 제한 기간은 2년"이라며 "대기질 개선과 탄소중립을 위해 전기 자동차 보급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사천공항을 우주항공 허브로" 경남도, 범도민 서명운동 전개

인프라 확장·국제선 취항 등 목표
정부에 국제공항 승격 건의 방침

경남도는 사천·진주의 우주항공산업 도시에 걸맞는 사천공항 인프라 확장과 국제선 취항 등을 목표로 경남 우주항공 허브공항 육성 범도민 서명운동을 7월부터 9월까지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명 운동은 도민의 염원을 하나로 모아, 국토교통부가 수립 중인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사천공항의 단계별 인프라 확장과 국제선 취항 반영을 촉구하기 위해 추진됐다.

서명 운동은 경남도·시군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에 진행된다. 여름 휴가철에 맞춰 사천공항 여객 터미널에서 이용객 대상 홍보 캠페인과 참여 기관장 릴레이 서명을 통해 도민의 서명 운동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도민들의 염원이 모인 서명 결과를 국토교통부, 국회 등에 전달하고, 사천공항의 국제공항 승격 필요성을 강력히 건의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여객 터미널 증축, 국제선 취항 등 공항 기능의 전면적인 재정비를 통해 우주항공 허브공항으로의 도약을 꾀한다"며 "국제공항 승격은 단순한 공항 확대가 아니라 우주항공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서부 경남 경제·관광 활성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전략적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대구시, 2차 추경 예산안 405억 편성

민생안정·재난대응 방점

대구시가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2차 추경안은 모두 405억 원 규모로 민생안정과 재난대응을 위한 것으로 일반회계는 297억 원, 특별회계는 108억 원이 각각 기정 예산보다 증가했다.

주요 세입재원은 세외수입 153억 원, 국고보조금 209억 원, 특별교부세 18억 원 등이다.

이번 추경안은 민생·재난에 시급히 대응하기 위한 정부 제1회 추경의 취지에 맞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노후관로 정비 등 민생지원과 재난안전 대응을 위한 필수사업만 선별해 편성했다.

추경예산안 주요 내용은 소비 부진에 따른 지역경기 회복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196억 원을 편성해 총 2800억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대구로페이)을 발행하고 자동차 부품기업 구직자·재직자 고용안정지원금 10억 원을 편성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산불·화재·지반침하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재난·안전 대응 예산 164억 원을 편성했다.

대구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오는 17일부터 시작되는 제318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대구=김강석 기자 presskim@

전남도, '국제 청년 섬 워크캠프' 연다

전라남도의 섬에서 15개국 외국 청년 워크캠프가 열린다.

전라남도가 '제6회 국제 청년 섬 워크캠프'를 오는 19일까지 7일간 신안군에서, 8월 8~12일 완도군에서 각각 개최한다.

국제 청년 섬 워크캠프는 전남 섬의 가치를 국내외 청년과 공유하고, 자발적 봉사·문화교류를 통해 섬 주민과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20년부터 추진됐다.

올해 워크캠프에는 프랑스, 이탈리아, 멕시코 등 15개국에서 입국한 외국 청년과 국내 체류 외국인, 한국 청년 등 총 50명이 참여한다. 참가자들은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핵심 주제인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를 함께 토론하며 협력할 예정이다.

국제 청년 섬 워크캠프 현장 /전남도

박태건 전남도 섬해양정책과장은 "섬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청년이 공동체와 지속가능성을 고민하는 소중한 공간"이라며 "이번 워크캠프가 섬과 청년이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플랫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남=양수녕 기자 ysn6313@

문정~상망 연결 도로, 국도28호선 지정

영주시 순환도로망 구축 사업 결실

영주시가 추진해온 순환도로망 구축의 핵심 구간이 마침내 국도 지정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문정교차로에서 상망교차로를 잇는 도로가 국도28호선으로 새롭게 지정되면서 산업단지 접근성과 도시 외곽 교통 체계의 획기적 개선이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영주시 문정동에서 상망동까지 연결되는 도로를 국도28호선으로 신설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구간은 총연장 9.3km로, 이 중 6.5km는 신설되는 구간이다. 출발점은 국도5호선 문정교차로이며, 종점은 국도36호선 상망교차로다.

이 노선은 영주시 외곽을 따라 연결되는 순환도로망의 마지막 연결 축으로, 도심 교통을 외곽으로 분산시키는 핵심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국도 지정으로 도시 동서축 교통 흐름이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도로는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직결되는 주요 노선이다. 산업단지 활성화와 기업 입지 여건 개선을 위해 오랫동안 도로 신설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국도 지정은 입주 기업의 물류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이번 도로가 향후 국가사업으로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제7차 국도 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영주(경북)=손기섭 기자 gbnews8082@

지역 이모저모

울진군, 열차 여행상품 선봬

울진군은 오는 22일 코레일 강원본부와 협력해 당일 여행상품 '울진에서 준비한 우리 찐 여행'을 선보인다.

이번 상품은 강릉역에서 출발해 울진군의 주요 관광지와 전통시장, 그리고 제철 먹거리를 아우르는 코스로 구성됐다. 철도 연계 관광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기획된 이 열차는 1인당 1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으로 운영된다.

여행 코스는 해안과 내륙으로 나뉘며, 울진 5일장인 바지게시장 등지를 포함해 지역 특색을 체험할 수 있는 일정이 마련됐다

/울진(경북)=손기섭 기자

하미멜론 /해남군

해남군, 하미멜론 본격 출하

해남군은 올해 신소득 하미 멜론 조기출하 기술 시범사업을 추진, 7월초부터 본격 출하를 시작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24년 신소득작목 발굴의 일환으로 농업기술센터의 직원들이 자체 실증시험을 통해 하미멜론 품종을 도입, 올해 처음 실시된 시범사업이다. 시장 조기 출하를 위한 하우스 보온필름, 예냉시스템 등의 시설 및 기술지원이 이뤄졌다.

군은 향후 새로운 멜론 품종별 특성과 소비자 기호를 분석해, 지역에 적합한 품종을 선발하고 고품질 멜론 생산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남(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영화의전당, '아랍영화제' 개최

영화의전당은 오는 18일부터 23일까지 국내 유일의 아랍 중심 영화제인 '제14회 아랍영화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아랍의 삶속으로 한 걸음 더'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영화제에서는 아랍 22개국을 대표하는 작품들 가운데 엄선된 총 12편의 화제작을 소개한다.

레바논,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등 아랍 12개국에서 제작된 장편 9편과 단편 3편을 상영하며 다채롭고 생생한 아랍 문화의 정수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부산=이도식 기자

창원시,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창원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공동으로 오는 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반송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권익위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협업 기관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상담반이 직접 지역을 방문해 주민들의 고충을 듣고 해결 방안을 찾아주는 권익 구제 서비스다.

상담에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신용 회복 및 채무 조정, 폐업 후 재창업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등 자영업자와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한 전문 상담이 진행될 예정이다.

/창원(경남)=손병호 기자

용량 늘리고 가격 내리고… 식품업계, 정부 물가안정 동참

남양유업 '맛있는우유GT' 2종 용량 10mL 늘리고 판매가 유지

롯데웰푸드 '컴포트잇츠이너프' 리브랜딩 후 가격 100원 인하

업계 "정부 요구 과도" 불만도 "공급망 안정 등 근본대책 병행을"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고객들이 음료를 살펴보는 모습.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고객들이 라면을 살펴보는 모습. /뉴시스

물가 안정을 핵심 국정 과제로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요구에 식품업계가 부응하고 나섰지만 심정은 다소 복잡하다. 정부의 상생 압박 속에 일부 업체들은 제품을 리뉴얼하면서도 가격을 낮추거나 용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소비자 부담 완화에 동참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장기적인 물가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감지된다.

남양유업은 최근 '맛있는우유GT' 딸기와 초코 제품의 용량을 기존 180mL에서 190mL로 소폭 늘렸지만, 판매가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소비자 가격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제품 가치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소비자의 체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변동 없이 증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롯데웰푸드 역시 리뉴얼 제품을 통해 가격 조정에 나섰다. 자사 간편식 브랜드 '컴포트잇츠이너프'의 바형 제품을 '시리얼 브렉퍼스트 바'로 리브랜딩하면서 가격을 1600원에서 1500원으로 인하했다. 대용량 미니 바 제품도 2000원 가까이 낮춘 7500원으로 가격을 재조정했다. 기업 측은 "실질적인 혜택이 소비자에게 전달되도록 구성과 가격을 함께 손봤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식품·유통업계는 정부와 함께 여름철 물가 안정을 위한 일환으로 라면, 빵, 음료 등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주요 품목에 대해 7~8월 중 전국 대형마트와 편의점에서 할인 행사를 벌이고 있다. 최대 50% 할인 판매하거나, 1+1, 2+1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해 실질적인 체감 할인 효과를 제공한다.

업계 내부에서는 정부의 요구가 과도하다는 불만도 있다. 원가 불안이 여전한 상황에서 가격을 내리는 건 기업 입장에선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기업이 일방적으로 책임을 떠안는 구조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시적 할인과 가격 조정이 오히려 '반사적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할인 종료 이후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가격 인상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고, 일부 업체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재차 가격을 올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

물가 관리의 초점이 특정 업종에만 집중된 점도 문제로 꼽힌다. 식품업계 외에도 통신비, 전기요금, 대중교통비 등 주요 생활비 항목이 줄줄이 오르는 상황에서 가공식품에만 강도 높은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럼에도 식품기업 입장에선 정부와의 갈등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 기조에 맞설 수 없으니 지금은 버텨보자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라며 "단기적 가격 조정보다는 공급망 안정과 유통 구조 개선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병행되어야 실질적인 물가 안정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태국·日 넘어 홍콩·대만서도 '밸리곰' 인기

롯데홈쇼핑, 대만·홍콩서 전시 진행
향후 中·말레이 등 신규지역 IP진출

롯데홈쇼핑이 지난 11일 홍콩, 대만에서 자체 개발한 캐릭터 '벨리곰' 첫 대형전시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롯데홈쇼핑에 따르면, 자사 캐릭터 '벨리곰' 전시를 통해 태국과 일본에 이어 대만까지 진출하며 글로벌 활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올해는 젊은층을 중심으로 K-콘텐츠 관심도가 급증하고 있는 홍콩에 진출하며 중화권으로 활동 영역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이에 롯데홈쇼핑은 내달 31일까지 홍콩 최대 규모 아울렛인 '시티게이트 아울렛'에서 수영장 콘셉트의 '다이브 인투 서머' 전시를 진행한다. 튜브를 탄 5미터 대형 벨리곰 조형물과 함께 '안전요원 벨리곰', '서핑하는 벨리곰' 등을 활용한 6곳의 포토존을 선보인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대만에서는 이달 20일까지 '소고백화점' 중샤오점에서 여름 해변 콘셉트 전시와 팝업스토어를 진행한다. 내달 5일부터는 대만에서 개최되는 '2025 크리에이티브 엑스포'에 참가해 벨리곰 인지도를 더욱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홍콩 '시티게이트 아울렛'에서 열린 롯데홈쇼핑 캐릭터 벨리곰의 '다이브 인투 서머' 전시와 팝업스토어 전경. /롯데홈쇼핑

한편, 현재까지 글로벌 시장에 출시된 벨리곰 라이선스 제품은 500여 종에 달한다. 롯데홈쇼핑은 향후 중국, 말레이시아를 비롯해 인도, 러시아 등 신규 지역으로 벨리곰 지식재산권(IP) 진출을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롯데홈쇼핑 정지현 콘텐츠개발랩(LAB)장은 "국내를 넘어 세계로 통하는 벨리곰 IP 경쟁력을 활용해 공공전시, 팝업스토어, 굿즈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글로벌 팬들과의 만남을 확대하고 있다"며 "향후 국가별 트렌드와 수요를 반영한 맞춤 콘텐츠를 확대하는 한편, 인도 등 새로운 지역으로 활동영역을 넓혀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하이트진로, 행안부와 모바일 신분증 알려

책임있는 음주문화 조성 앞장

국내 최대 종합주류회사로서 책임 있는 음주문화를 조성하고, 소상공인의 영업환경을 개선하고자 하이트진로가 정부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함께 발벗고 나선다.

하이트진로는 전날 서울 서초동 본사 사옥에서 하이트진로 김인규 대표와 행정안전부 김민재 차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모바일 신분증과 함께하는 책임 있는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모바일 신분증이 위·변조 걱정 없이 성인 여부를 간편하고 정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신뢰성 높은 디지털 신원인증 수단임을 널리 알리고, 책임 있는 음주문화 형성을 위해 추진됐다.

하이트진로는 주력 브랜드 '참이슬' 150만 병에 모바일 신분증 홍보 라벨을 부착, 7월 말부터 전국 음식적, 식당 등에 순차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 유통·영업망을 활용해 소상공인 점포에 홍보 포스터를 부착하는 등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모바일 신분증에 대한 매장 내 홍보와 안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이날 협약식 이후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근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해 '이제 모바일 신분증으로 당신을 인증해 주세요'라는 슬로건의 홍보 포스터를 부착했다. 점주가 정부 공인 모바일 신분증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진위 판별법이 담긴 안내서도 전달하는 등 현장 중심의 홍보 활동도 함께 진행하면서 향후 협업 활동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하이트진로 김인규 대표는 "이번 업무협약은 책임 있는 음주문화 정착이라는 사회적 과제에 더해, 디지털 사회 전환과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스타벅스, 11년간 농가에 커피퇴비 지원

누적 5500톤… 상생·선순환 활동

스타벅스 코리아가 2015년부터 현재까지 11년간 우리 농가에 지원한 커피퇴비가 누적 5500톤을 넘어서며, 커피찌꺼기를 통한 상생 및 선순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스타벅스는 지난 6월 18일 전북 고창의 고구마 농가에 200톤에 이르는 1만 포대의 친환경 커피찌꺼기 퇴비를 전달했다. 스타벅스가 기부한 커피찌꺼기 퇴비는 10여 곳의 농가에서 고구마를 재배하는데 활용될 예정이며, 해당 고구마는 스타벅스의 대표적인 푸드 상품인 '한 입에 쏙 고구마'로 탄생된다.

'한 입에 쏙 고구마'는 2015년 첫 출시 이후 지속적인 리뉴얼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는 전북 고창 고구마를 활용한 상품으로 전국 매장에서 판매 중이다.

상품명처럼 한 입에 즐길 수 있는 간편한 큐브 형태로, 출시 이후 현재까지 누적 370만 개 이상 판매되며 10년간 꾸준히 사랑받는 인기 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 /신원선 기자

GS리테일 CX고문에 백지연 전 앵커

GS리테일이 이달 초 백지연 전 앵커를 고객경험(CX) 고문으로 위촉했다고 15일 밝혔다. GS리테일에 따르면, 곧 공식 활동에 나서는 백 고문은 지상파 메인 뉴스 사상 최초·최연소·최장수 여성 앵커라는 타이틀을 지닌 언론인이다. 기자와 앵커를 거쳐 CJ tvN 고문으로 활동했으며, 고문 재임 당시 '백지연의 끝장토론', '백지연의 피플인사이드' 등 시사·인터뷰 프로그램을 기획한 바 있다. /안재선 기자

G마켓·옥션, 2500곳 중소판매자와 상생

10월 31일까지 '상생페스티벌'

신세계그룹 계열 이커머스 G마켓과 옥션이 오는 10월 31일까지 '상생페스티벌'을 열고, 2500여 개의 중소 판매자(셀러) 상품을 특가에 선보인다고 15일 밝혔다.

상생페스티벌은 중소상공인과 지역 생산자의 온라인 판로 개척을 위해 2009년부터 이어져 온 온라인 박람회다. G마켓이 주최하고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총 12곳의 정부 및 공공기관이 동참한다.

올해 상생페스티벌은 1차와 2차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 1차는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2차는 10월 13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다.

대표적으로 '국가XG마켓 인증관' 코너에서는 정부가 인증하고 G마켓이 추천하는 공식 인증 판매자의 상품을 한 데 모아 선보인다. '지역우수 인증관'에서는 각 지역별 특산물도 함께 소개할 예정이다.

G마켓 백소라 셀러 엑설런스 팀장은 "업계 최초로 중소셀러의 온라인 판로 확대를 위해 시작한 상생페스티벌에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셀러가 참여했다"며 "정부기관과 공공기관, G마켓이 엄선해 자신 있게 추천하는 만큼, 중소상공인과 지역생산자 셀러들의 상품에 많은 관심 바란다"고 전했다. /안재선 기자

큐라클, 신약 파이프라인으로 재도약… "R&D·재무 선순환"

알츠하이머·당뇨 치료제 개발 가속
CU71, 글로벌 학회서 전임상 발표
CU01, 당뇨병성 신증 임상 2b 진행
반환된 CU06도 자체 개발로 전환
286억 유증 추진… R&D 집중 투입

큐라클 본사 전경. /큐라클

큐라클이 기존 망막 질환 치료제에 이어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등으로 후속 파이프라인을 확장함과 동시에, 이를 위한 자금을 확충하는 등 신성장동력을 마련중이다.

큐라클은 2016년 5월 설립된 후 2021년 7월 기술특례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바이오 벤처 기업이다. 이후 상장 5년차를 맞고 있는 가운데, 최근 매출 둔화와 수익성 악화를 지속하고 있다. 신약개발 중심의 기업 특성상 임상 성공 여부, 신약 상업화 등은 실적에 주효하게 작용한다. 큐라클의 경우에도 주력 파이프라인이었던 CU06이 지난해 반환되면서 마일스톤 수익 등에서 실적 악화를 겪었다.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84.1% 급감해 16억원에 그쳤다. 영업손실은 2023년 105억원, 2024년 125억원 등으로 적자 폭을 키웠다.

15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큐라클은 오는 27~31일(현지 시간)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리는 '알츠하이머 협회 국제 콘퍼런스(AAIC 2025)'에서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후보물질 'CU71' 전임상 결과를 발표한다.

큐라클은 알츠하이머병 동물실험으로 CU71의 유의미한 약물 가능성을 확인했다. 물체 인지 실험, 수중 미로 실험 등을 통해 인지 기능 개선, 장기 기억력 회복 등에서 CU71의 대조군 약물 도네페질 대비 우수한 효과가 나타났다.

CU71은 뇌혈관내피 기능장애 차단제로, 혈액뇌장벽(BBB)을 안정화해 알츠하이머병 진행을 억제하는 기전을 갖췄다.

혈액뇌장벽(BBB)은 약물이나 독성 물질을 선택적으로 차단해 뇌를 보호한다. 즉, 혈액뇌장벽(BBB)의 기능 이상은 뇌에서 유해 물질 유입,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 축적, 신경세포 손상 등을 유발한다.

큐라클은 퇴행성 뇌질환의 주요 발병 원인이자 악화 요인으로 꼽히는 혈액뇌장벽(BBB) 기능 장애와 중추신경계 염증을 정상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연구개발을 진행해 왔다. 기존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시장에서 발매되는 아밀로이드 베타를 표적하는 항체 등과 차별화한 약물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 안에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사전 미팅을 신청하고 오는 2026년 상반기에는 CU71 임상 1상시험계획(IND)을 제출할 계획이다.

큐라클이 구축한 주력 파이프라인 중에 가장 앞서 있는 신약 후보물질은 'CU01'이다. 현재 국내 24개 대학병원에서 당뇨병성 신증을 적응증으로 한 'CU01' 임상 2b상이 진행되고 있다. 해당 임상은 올해 4분기 종료될 예정이다.

CU01은 체내 신호전달을 조절하는 단백질에 작용해 항산화, 항염증, 항섬유화 등에 관여한다. 큐라클은 CU01이 당뇨 합병증은 물론, 신장 섬유증을 동반하는 만성 신장질환 환자 치료에도 쓰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망막 질환 치료제 'CU06(리바스테랏)' 연구개발도 고도화됐다.

CU06은 일찍이 2021년 프랑스 떼아오픈이노베이션에 기술이전됐으나 2024년 반환됐다. 큐라클은 CU06 임상 2b상을 직접 수행할 예정으로, 이후 임상 3상, 품목허가까지 각 단계별 연구개발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큐라클은 연구개발을 지속하기 위한 유상증자를 추진한다. 올해 5월 이사회에서 총 286억원 수준의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발행 예정 주식 수는 700만주로, 이번 유상증자 전 발행주식수의 50%에 해당한다.

유상증자로 조달하는 자금은 대부분 연구개발에 우선 투입된다. 신약 후보물질 CU06, CU71, CU01 순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오는 2027년까지 약 245억원 규모의 연구개발이 다수 진행된다.

큐라클 관계자는 "큐라클이 확보한 각종 혈관내피 기능장애 차단제들은 계열 내 최초 약물 후보로, 난치성 혈관질환의 새로운 치료 옵션이 될 것"이라며 "연구개발로 매출 성장과 수익성 개선 돌파구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엘지유니참 '마미포코'

밤에도 걱정없는 착용감 기저귀 3종 리뉴얼 출시

엘지유니참은 영유아 기저귀 브랜드 '마미포코'에서 '하이퍼드라이 팬티', '슈퍼컴포트 팬티', '꿀잠팬티' 등 인기 기저귀 3종을 재단장해 선보인다고 15일 밝혔다.

강력한 흡수력이 특징인 '하이퍼드라이 팬티'는 강력한 흡수력이 특징으로, 흡수 후 시트에서 느낄 수 있는 보송한 느낌을 20% 가량 높였다. 특히 기저귀 탑시트 소재를 개선해 기존 제품의 넉넉한 흡수량은 그대로 유지하고, 용변이 다시 묻는 가능성을 줄였다.

'슈퍼컴포트 팬티'는 폭신하고 보송한 감촉의 에어 쿠션을 새롭게 적용했다. 아이들의 다양한 체형과 자세에 맞춰 부드럽게 늘어나는 허리 밴드와 피부에 닿는 폭신한 감촉이 보다 편안한 착용감을 갖췄다.

밤에 착용하는 기저귀인 '꿀잠팬티'는 기저귀 안팎에 '이중 옆샘 방지 밴드'를 설계했다. 다리 사이로 새는 분변을 기저귀 안에서 한 번, 밖에서 또 한 번 차단해 아이의 숙면을 돕는다. 최대 5회 분의 용변을 흡수할 수 있어 장시간 착용도 가능하다. /이청하 기자

혈액제제 수급 안정 노린다 SK플라즈마, 저장설비 확대

안동시에 120억 투자 계약
냉동·냉장창고 신설 추진
신규 고용 통한 지역 기여

지난 14일 안동시청 소통실에서 김승주 SK플라즈마 대표(오른쪽)와 권기창 안동시장(왼쪽)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양해각서'에 서명하고 업무협약 체결을 기념하며 사진촬영하고 있다. /SK플라즈마

혈액제제 전문 기업 SK플라즈마는 지난 14일 안동시와 약 120억원 규모의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안동공장 저장고 증설을 통해 혈장분획제제 공급의 안정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SK플라즈마는 오는 2027년까지 120여 억원을 순차적으로 투입해 기존 안동 분획센터 인근 부지(7955.7㎡)에 원료 혈장을 보관하는 냉동 설비와 완제 의약품 등을 위한 냉장 설비를 구축한다. 자재 창고, 사무공간 등 생산 운영 효율을 높일 시설도 들어선다.

SK플라즈마와 안동시는 이러한 설비 확충과 함께 신규 인력 채용이 이뤄지는 경우, 이번 추가 투자에 따른 고용 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SK플라즈마는 앞서 지난 2015년 안동 경북바이오산업단지에서 공장 건설에 착수, 2018년부터 본격 상업 생산을 시작했다. 이 공장은 연간 60만 리터의 혈장을 분획할 수 있는 생산 설비를 갖췄다. 알부민, 면역글로불린 등 필수의약품을 생산하여 국내외에 공급하고 있다

김승주 SK플라즈마 대표는 "저장시설 증대를 통해 시장 수요 변화에 보다 유동적으로 혈액제제를 생산·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됐다"며 "혈액제제 공급 안정화와 지역 바이오산업 활성화 실현을 위해 안동시와 다양한 협업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아모레퍼시픽, 다이소 전용 '필 쏘 굿' 선봬

1020세대 겨냥한 실속형 제품

아모레퍼시픽은 균일가 생활용품점 다이소에서 '해피바스' 신제품을 선보인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 '필 쏘 굿'은 은 다이소 전용 브랜드이며, 바디워시, 한 장 샤워 패드, 바디패치 등 바디케어 제품군으로 구성됐다.

필 쏘 굿 바디워시는 조밀한 젤 제형과 바디 트러블을 관리해 주는 기능을 갖췄다. 아크네 라인은 살리실산 0.5%, 아하(AHA) 성분 등을 함유해 등드름 및 각질 개선을 돕는다. 브라이트닝 라인은 고순도 비타민과 만다린 껍질 추출물로 피부 미백 효과를 선사한다.

한 장 샤워 패드는 장갑 형태 바디워시 제품으로, 메쉬면과 엠보면으로 설계해 활용도를 높였다. 아하, 바하 성분으로 피부 잔각질을 녹일 수 있고, 거품 샤워도 가능하다.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휴대할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바디패치는 등과 가슴에 직접 부착하는 제품이다. 시카 수딩겔 성분이 피부 온도를 낮춰주고 진정시킨다. 또 색소침착까지 개선해 주는 기능성 제품이다. 논코메도제닉 테스트를 완료해 여드름성 피부도 사용할 수 있다.

/이청하 기자

애경산업, 북미 유통망 확대 박차

'코스모프로프 라스베이거스' 참가

애경산업이 오는 17일(현지 시간)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되는 '코스모프로프 라스베이거스 2025'에 참여한다고 15일 밝혔다.

코스모프로프는 세계 최대 규모 뷰티 박람회로, 화장품 제조사, 브랜드사, 원료사 등 다양한 기업이 모여 글로벌 뷰티 산업의 최신 동향을 조망한다.

애경산업은 미국을 포함한 북미 지역에서 기업과 기업 간 거래(B2B) 유통망을 확대하기 위해 박람회 참가를 결정했다. 미국 현지 유력 유통사, 리테일 파트너 등과 교류하며 사업 전략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애경산업은 전용 부스를 마련해 메이크업 브랜드 에이지투웨니스(AGE20'S), 루나, 기능성 비건 스킨케어 브랜드 닷솔루션, 포인트앤 등 화장품과 케라시스, 샤워메이트, 럽센트 등 헤어·바디 제품을 전시한다. /이청하 기자

'스프라이트 제로 Chill' 광고 캠페인 스틸. /CGV

CGV

'스프라이트제로 Chill' 4DX 광고 캠페인 진행

CGV가 코카-콜라사의 세계 1등 사이다 브랜드 스프라이트와 함께 7월 한 달간 전국 CGV 4DX관에서 신제품 '스프라이트 제로 Chill' 광고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스프라이트와 함께하는 4DX관 특화 광고로 브랜드의 핵심 메시지인 '상쾌함'과 '쿨함'을 온몸으로 체감할 수 있는 콘텐츠로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스프라이트는 매년 여름 '쿨 썸머 마케팅'을 전개하며, 대표적인 워터 페스티벌 '워터밤 서울'의 공식 후원을 통해 물과 함께하는 체험형 브랜딩을 지속해 왔다. 올해는 '스프라이트 제로 Chill'의 출시와 함께, 브랜드 모델 에스파(aespa)의 카리나가 출연한 광고를 CGV 4DX관 전관에서 상영한다. CGV는 이번 협업을 통해 여름 시즌 극장을 찾는 관객에게 새로운 감각적 경험을 제공하고, 브랜드 메시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신원선 기자

100+

2025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

늦어진 은퇴, 달라진 자산시장,
초고령사회 자산관리 전략

|일시| 7월 22일(화) 오후2시 **|장소|**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KRX) 1층 컨퍼런스홀

● 행사개요

행 사 명 2025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
주 제 늦어진 은퇴, 달라진 자산시장, 초고령사회 자산관리 전략
일 시 2025년 7월 22일(화) 14:00~17:00 (VIP 티타임 13:30~14:00)
장 소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KRX) 1층 컨퍼런스홀
주 최 메트로신문, 메트로경제
등 록 사전등록 무료, 현장등록 5만원
문 의 100세플러스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포럼에 참가하는 분께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합니다.

● 연사 소개

김학균
-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투자분석부장
-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장

박희운
- 한국투자신탁운용 솔루션본부장(전무)
- KB증권 리서치센터 전문위원
- 삼성자산운용 리서치센터장

정재훈
- KB국민은행 부동산사업부 수석차장
- 명지대학교 일반대학원 겸임교수

김민승
- 코빗 리서치센터 설립 멤버 및 리서치센터장
- 다수 블록체인 스타트업에서 전략기획 업무 수행

● 프로그램

구 분	시 간	프 로 그 램
참가등록	13:00~14:00	참가접수 및 등록 ※VIP티타임: 13:30~14:00
개막식	14:00~14:15	〈축사〉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개회사〉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기조강연	14:15~14:50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 : 달러약세와 지배구조 개선이 가져올 한국증시의 변화
강연	14:50~15:30	**박희운** 한국투자신탁운용 솔루션본부 전무 : 글로벌 자산배분과 리스크 대응형 포트폴리오
	15:30~16:10	**정재훈** KB국민은행 부동산사업부 수석차장 : 내 집은 자산일까, 부채일까? 초고령사회에서의 주거전략과 부동산 시장 전망
	16:10~16:50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 : 트럼프 2기와 스테이블코인: 미국의 디지털자산 전략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metro · metro 경제

중기중앙회, '노란우산' 가입고객 국내여행 지원

중소기업중앙회가 민생경제 회복 캠페인 일환으로 '노란우산'에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국내여행 지원 및 여행후기 이벤트'를 올해 말까지 진행한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의 복지 혜택을 확대하는 데 노력해 왔고 휴가 지원이 국내 여행 활성화와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

여성경제인協, 이집트 여성기업인들에 노하우 전수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산하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는 KOICA 글로벌 연수사업 일환으로 '이집트 여성 취·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 역량 강화 연수생을 위한 여성기업 육성 현장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쿠팡CLS, 혹서기 온열질환 예방 합동 안전 캠페인

쿠팡 물류전문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지난 14일 울산 북구 서브허브에서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혹서기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합동 안전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 및 CLS 관계자들은 현장에서 근로자들에게 폭염 대비 예방 물품 등을 나눠주며 폭염 대비 안전 수칙을 소개했다. /쿠팡

KB자산운용, '인구문제 인식개선 캠페인' 동참

KB자산운용은 김영성 대표이사(가운데)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주관하는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15일 밝혔다. '인구문제 인식개선 캠페인'은 우리나라가 직면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동시에 민관이 협력해 해결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범국민 캠페인이다. /KB자산운용

광동제약, 임직원 물품 기부 캠페인 성료

광동제약이 친환경 자원순환을 위한 'KD굿사이클링 임직원 물품 기부 캠페인'을 성료했다고 15일 밝혔다. 광동제약 임직원들이 가정에서 생활용품·의류·가전제품 등 재사용 가능한 다양한 물품을 취합해 굿윌스토어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기부 물품은 굿윌스토어에서 상품화 과정을 거쳐 판매되고 수익금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쓰인다. /광동제약

HD현대오일뱅크, 화물차 운전자 자녀에 장학금 지원

화물복지재단과 맞손
115명 선정해 총 1억 지급

HD현대오일뱅크가 'HD현대1%나눔재단'을 통해 화물복지재단과 손잡고 화물차 운전자 자녀의 학업을 지원하기 위한 장학금을 지급한다.

HD현대오일뱅크는 서울시 강남구 화물복지재단에서 '2025년 희망바퀴 장학증서 수여식'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HD현대오일뱅크는 올해 3월부터 두 달간 화물복지재단을 통해 대상자를 모집했다. 화물차 운전자 중 배려자 가정 자녀 115명을 최종 선정해 총 1억원을 지급한다.

HD현대오일뱅크 공장 전경. /HD현대오일뱅크

업에 힘쓰고 있는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기 위해 2012년부터 장학지원 사업을 지원해오고 있다. 이번 장학금 지원을 통해 현재까지 총 1640명에게 장학금 14억을 지급했다.

HD현대오일뱅크 대외협력부분 황인진 상무는 "우리 청소년들이 보다 나은 교육 환경에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올해도 장학사업을 진행하게 됐다"며 "기억과 사회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롯데케미칼, 취약계층에 '동행쌀' 기부

서울 송파구 복지관 등에
10kg 쌀 1217포 전달

롯데케미칼이 10kg쌀 1217포를 송파구청에 기부했다.

롯데케미칼은 지난 14일 오후 송파구청에서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과 사회복지관 등에 전달할 쌀을 기부하는 '동행쌀' 기부 행사를 가졌다고 15일 밝혔다.

롯데케미칼 '동행쌀'은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인근 지역과의 상생과 지역발전을 위해 구매하는 지역 농산물로 지난 2021년부터 매년 구매하여 기부 행사를 이어오고 있다. 구매한 농산물을 우리 주변의 취약계층에게 전달해 따뜻한 나눔을 같이 되새기자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지난 14일 롯데케미칼이 10kg쌀 1,217포를 송파구청에 기부했다. (왼쪽부터)이영준 롯데케미칼 총괄대표, 서강석 송파구청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롯데케미칼

이영준 롯데케미칼 총괄대표는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나눔을 통해 상생하는 세상을 만들어간다는 목표를 이루고자 다양한 지원활동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차현정 기자 hyeon@

환경부, 1000가구에 폭염대응 물품 지원

전국 각지에 폭염 저감시설 설치
취약계층에 여름용 이불 등 제공

환경부가 전국 각지에 폭염 저감시설을 설치한다. 또 홀몸 어르신 등 취약계층 1000가구에 폭염대응 물품 지원을 추진한다.

금한승 환경부 차관은 15일 대전 서구 한민시장을 방문해 지역 폭염 저감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금 차관은 이날 전통시장 내 설치된 증발냉방장치 등 폭염저감 시설을 살폈다. 이어 인근 무더위 쉼터인 한민경로당을 찾아 홀몸 어르신 등 폭염 취약계층에 물품을 전달하고 폭염 시 행동 요령을 안내했다.

환경부는 기후 위기로 심해지는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89곳에 폭염 저감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 기업·단체와 협력해 홀몸어르신·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1000가구를 대상으로 여름용 이불, 양산, 쿨스카프, 간편죽, 생수, 도라지차 등 폭염대응 물품 지원에도 나선다.

세종 환경부 청사. /뉴시스

금 차관은 "전통시장 같은 생활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후 적응형 기반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며 "홀몸 어르신 등 폭염 취약계층을 상대로 실효적인 정책과 현장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JW홀딩스, 지속가능경영 체계 고도화

'유엔글로벌콤팩트' 가입

JW홀딩스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글로벌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해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에 가입했다고 15일 밝혔다.

유엔글로벌콤팩트(UNGC)는 지난 2000년 유엔이 설립한 기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권장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발적 협약이다. 현재 전 세계 167개 국에서 2만5000개 이상의 기업 및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JW홀딩스는 이번 가입을 통해 UNGC 공식 회원 자격을 획득했다.

JW홀딩스는 UNGC 10대 원칙과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바탕으로 경영 원칙을 도입하고, 이를 전사적인 경영활동에 반영함으로써 ESG 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JW홀딩스 관계자는 "UNGC 가입은 JW의 창업 정신인 '생명존중'과 '도전정신'의 가치를 바탕으로 글로벌 지속가능성 기준에 부합하는 ESG 경영 실천을 공고히 하려는 전략적 결정"이라며 "국제 사회가 요구하는 책임 있는 기업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글로벌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전북은행, 아동복지시설 환경 개선

'JB희망의 공부방 제202호' 오픈식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전주시 효자동 소재 한사랑지역아동센터에서 'JB희망의 공부방 제202호' 오픈식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004년 개소한 한사랑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돌봄과 교육이 필요한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아동복지시설이다. 개소로부터 20년 이상이 지난 만큼, 센터 노후화로 학습 및 생활환경 개선이 필요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전북은행은 아동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큰 오래된 책상과 의자를 새롭게 교체했다. 또한 균열과 타일 깨짐, 세면기 고장 등으로 안전과 청결에 취약했던 화장실을 개보수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급식지원을 위한 냉장고도 지원했다.

오현권 전북은행 부행장(왼쪽)과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은행

오현권 전북은행 부행장은 "앞으로도 미래의 꿈나무인 아동들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누구에게나 따뜻한 금융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스탠다드에너지, 산업부 장관상 수상

한전 UPS 제어기술, ESS에 접목

바나듐 이온 배터리(VIB)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스탠다드에너지가 한국전력공사의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 제어기술을 접목한 융합형 에너지저장장치(ESS) 모델 'UES'를 통해 기술력을 입증했다.

스탠다드에너지는 지난 11일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개최된 '2025년 KEPCO 에너지 신기술 사업화 대전 최종 경연' 중 '유망기술 활용 BM 콘테스트'에 참여해 대상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차현정 기자

인사

◆ **예금보험공사** 〈신규 보임〉 ◇부서장 △수도권지역 통할실장 최승호 △충청지역 통할실장 양동완 △전북지역 통할실장 한중섭 △서울지역 통할실장 이광섭 △파산재단 파견 박해범 △한국은행 파견 남영진 △경찰대학 파견 윤홍규

부음

▲ 이철우(향년 89세)씨 별세, 이상면(전 하나은행 지점장)·이상각(작가)씨 부친상, 이구영(한화파워시스템 대표이사)씨 장인상 = 14일, 충남 서산의료원 상례원 국화1실, 발인 17일 오전8시30분. 041-689-7444

한국인의
패스트_푸드를
세계인의
베스트_푸드로

리아 새우

리아 불고기

TASTE THE FUN
LOTTERIA™

논란의 344억 짜리 '거대 드럼통'

홍경한의 시시일각

2012년 완공된 싱가포르의 '가든스 바이 더 베이(Gardens by the Bay)'는 지속가능한 건축과 혁신적인 도시 정원 설계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다. 이곳의 핵심 구조물인 '슈퍼트리(Supertree)'는 16층 규모의 거대한 수직 정원으로, 미래 도시의 비전을 시각화한 상징물이다.

슈퍼트리 그로브(Supertree Grove)와 드래곤플라이 호수(Dragonfly Lake) 등에 분포되어 있는 이 조형물은 금속 구조물과 식물이 조화를 이루는 유기적 형태, 낮과 밤에 따라 달라지는 기능적 전환, 그리고 매일 펼쳐지는 라이트 공연을 통해 공원 방문 자체를 하나의 문화경험으로 만든다. 빗물 수집 및 공기정화와 같은 역할까지 맡고 있는 슈퍼트리는 멀라이언(Merlion)과 함께 싱가포르의 정체성이자 도시 브랜드의 핵심이다.

반면, 현대건설이 기부채납 형식으로 창원시 성산구 대상공원에 조성중인 344억 원짜리 전망대 '빅트리(Bigtree)'는 예술적 완성도와 기획의 맥락성 측면에서 슈퍼트리와 비교가 안 된다. 랜드마크를 기대하며 슈퍼트리를 참조했다고 하는데, 일단 외형만 봐도 매우 다르다. 심미적인데다가 주변과의 조화가 빼어난 슈퍼트리와 달리 짧은 원통 형상은 흡사 거대한 '드럼통'을 연상케 한다. 시민들 또한 '탈모트리' 혹은 '공장 굴뚝'이라며 비판한다. 한마디로 '흉물'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흉물 논란에 휩싸인 창원 빅트리는 그 어떤 생물학적 생장 메커니즘과도 맞닿아있지 않고, 트리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나무'와도 동떨어져 있다. 기존의 공원 나무를 베어내고 가짜 나무모양의 시설물을 만들었다는 점에선 자연과 도시의 연결을 매개하기보다는, 환경 파괴적 요소로 작용한다.

빅트리의 가장 큰 문제는 기획의 출발점인 도시의 본질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싱가포르의 슈퍼트리는 국가 비전인 '정원도시'에서 '정원 속의 도시'로의 전환에 따른 도시계획의 일환으로 탄생했다. 즉, 기후·환경·도시철학이라는 총체적 맥락 속에서 유기적으로 융합된 결과물이다. 하지만 빅트리는 창원이라는 도시의 역사·문화·자연 환경과 어떤 연계성을 갖는지 명확히 설명되지 않는다.

성공적인 랜드마크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는 유일성이다. 세상에 하나뿐인 조형적 개성과 새로움이 요구된다. 예컨대 에펠탑은 높기 때문에 상징이 된 것이 아니라, 그 독특한 철골 구조와 기술적 밀도 덕분이다. 둘째는 해당 도시 고유의 서사와 문화가 기반이어야 한다. 시드니 오페라하우스가 의미 있는 이유는 건축 양식뿐 아니라 호주의 해양문화와 긴밀하게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셋째는 기능성이다. 랜드마크는 단지 눈으로 보고 만족하는 조형물이 아닌,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경험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안타깝게도 창원의 빅트리는 이 세 요소 중 어느 하나도 충족하지 못한다. 이 같은 결과는 창원시만의 특징과 상상력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소통에 불성실했음을 방증한다.

창원시는 빅트리 설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조명을 교체하거나 주변 정비와 같은 '보완'으론 문제의 근원에 다가설 수 없다. 지금이라도 창원의 정체성과 이야기가 내재된, 완전히 새로운 구상으로 나아가야 한다. /미술평론가

밸류업 외침에도 반응 없는 코스닥

기자 수첩
원관희
〈자본시장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목표로 도입된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이 시행 1년이 지났으나 정작 코스닥의 성적표는 초라했다. 코스닥 상장사 중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곳은 36곳에 불과했다. 전체 상장사의 2% 남짓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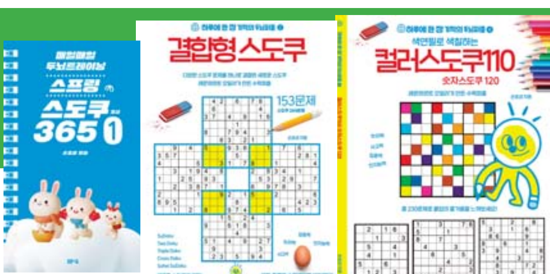
밸류업 프로그램의 취지는 분명했다. 상장사가 자발적으로 배당 확대나 자사주 소각, 성장 계획을 공시하도록 유도해 기업가치를 높이고, 떨어진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자는 것이었다. 거래소는 밸류업프로그램의 순항을 위해 무료 컨설팅과 IR(기업설명회) 지원에 적극 나섰다. 그러나 정작 행동에 나서야 할 기업들은 움직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시장 신뢰를 해치는 불성실공시 지정 사례만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코스닥 시장에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상장사는 116개사로, 전년 동기 대비 33%가량 증가했다. 이는 기업의 공시 관리가 부실해지고 경영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뜻이다.

현재로서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가 쉽지 않다. 기업들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동참하고 싶어도 돈이 없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이 다수를 차지하는 코스닥 시장에서 흑자 기업 비중은 아주 낮다. 올해 1분기 코스닥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36% 줄었고, 순이익은 26.78% 급감했다.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 확대를 하고 싶어도 '실탄'이 부족한 것이다. 연구개발(R&D)과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조차 쉽지 않은 상황에서 주가 부양에 나서기도 힘든 현실이다. 생존이 달린 기업에 '주가 부양을 위해 배당을 늘리라'는 요구가 얼마나 현실적인지 되묻게 한다.

이런 구조적 제약을 무시한 채, 프로그램 참여율만 탓할 수는 없다. 거창한 구호보다 필요한 건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다. 세제 혜택과 같은 실질적 유인책이 필요하다. 기업 입장에서 매력적인 인센티브가 없다면 참여는 늘어나지 않는다. 특히 투명성을 높이려면 불성실공시를 방치해선 안 된다. 불성실공시에는 단호히 대응해 '신뢰할 만한 시장'이라는 최소한의 기반부터 다져야 한다.

밸류업은 단기 주가 부양 쇼를 하라는 주문이 아니다. 기업이 미래 투자와 주주환원을 균형 있게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여야 한다. 정부는 기업들이 진짜로 '가치'를 키울 수 있도록 거기에 걸맞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wkh@metroseoul.co.kr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4			8			1		9
	7	3					2	
9					1		7	
		6		4				1
			9		3			
5				1		8		
	3		1					6
	4					7	1	
8		7			5			4

					9	8	7	
2				8	7			
3		8				1		
8	9		6		4			
	4						9	
			8		5		4	6
		6				3		4
			5	4				7
	3	1	2					

문제출제: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5	1	4	3	6	9	8	7	2
2	6	9	1	8	7	4	5	3
3	7	8	4	5	2	1	6	9
8	9	7	6	2	4	5	3	1
6	4	5	7	3	1	2	9	8
1	2	3	8	9	5	7	4	6
7	5	6	9	1	8	3	2	4
9	8	2	5	4	3	6	1	7
4	3	1	2	7	6	9	8	5

4	5	2	8	3	7	1	6	9
1	7	3	5	9	6	4	2	8
9	6	8	4	2	1	3	7	5
3	2	6	7	4	8	9	5	1
7	8	1	9	5	3	6	4	2
5	9	4	6	1	2	8	3	7
2	3	9	1	7	4	5	8	6
6	4	5	2	8	9	7	1	3
8	1	7	3	6	5	2	9	4

오늘의 운세 7월 16일 (음 6월 22일) http://www.saju4000.com

쥐 — **36년생** 자존심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 **48년생** 구설수가 있으니 새로운 만남에 삼각관계를 조심. **60년생** 노력한 만큼 성과도 놓으니 게으름 피우지 말고 전진. **72년생** 순조롭지는 않아도 진행을. **84년생** 망설임이 행운을 차는 결과.

소 — **37년생** 문제가 어려워도 잘 풀어나갈 운. **49년생** 같은 땅 같은 씨라도 꽃이 피는 시기는 다르다. **61년생** 첫 숟가락에 배가 부르지 않으니 기다리자. **73년생** 기대가 크면 투자도 그 만큼 발생한다. **85년생** 열정과 희망이 넘치는 하루.

호랑이 — **38년생** 만나는 즐거움을 좋아하다 망신을 당할 수 있다. **50년생** 마음 둘 곳을 모르고 방황한다. **62년생** 보기에는 멀쩡하나 속상함. **74년생** 하늘의 이치는 누구나에게 공평한데. **86년생** 자신밖에 모르던 배우자가 마음의 문을 연다.

토끼 — **39년생**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 **51년생** 옆에 있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도리. **63년생**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면 그만. **75년생** 직장일이 바빠도 공부를 향상시켜나간다. **87년생** 시샘하는 사람이 많으니 주의.

용 — **40년생** 미움과 따돌림을 당하는 마음을 접어야 내가 편해진다. **52년생** 병도 약도 다 내 탓. **64년생**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리나 복병이 있으니 주의. **76년생** 즐거워지니 재물도 늘어난다. **88년생** 이사는 가족끼리 모여 지혜를 모으도록.

뱀 — **41년생** 생활 속의 사랑에는 신비한 마력이 일어난다. **53년생**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다 놓칠 수 있다. **65년생** 좋은 인연으로 새로운 거래가 생긴다. **77년생** 조급하다고 서 들러서 될 일이 아니다. **89년생** 매매문서는 잘 살펴라.

말 — **42년생** 가족 간의 다툼을 피하고 양보하는 것이 좋다. **54년생** 상부상조하는 것이 이익을 가져온다. **66년생** 진로수정은 신중하게 해야. **78년생** 운이 열려 운수대통이니 하고 싶은 일을 해보자. **90년생** 누군가를 미워하면 내가 지친다.

양 — **43년생** 가정이 화목해야 일이 잘 풀린다. **55년생** 정상으로 오르는 것은 순식간. **67년생** 언제나 마무리가 가장 중요하다. **79년생** 연인을 만나도 일시적인 감정은 자제를 해야 할 듯. **91년생** 내가 건강해야 집안이 화목해지는 순서이다.

원숭이 — **44년생** 운이 호전되어 금전과 사랑이 따르는 하루. **56년생** 외출 시 이륜차를 조심. **68년생** 일시적인 감정으로 입방아에 오른다. **80년생** 고물가든 언제나 균등한 기회는 오기마련. **92년생** 발전이 느려 답답하나 현상 유지가 오늘은 최선.

닭 — **45년생** 이해를 바라지 말고 상대를 잘 설득하라. **57년생** 외나무다리에서 원수를 만난다. **69년생** 자책하지 말고 스스로를 칭찬하자. **81년생** 성장과 풍요의 상징인 토기처럼 일어설 수 있다. **93년생** 걱정이 해소되고 마음이 평화로운 날.

개 — **46년생** 약간의 먹구름이 끼었으나 곧 해소. **58년생** 독존적인 사고로 사람을 잃을 수. **70년생** 장래를 위해 적금을 드는 것이 좋겠다. **82년생** 미래 성장 동력은 현재 자기 실력을 배양하는 길. **94년생** 변화의 운이 있으니 망설이지 마라.

돼지 — **47년생** 친구들과 맛집에 가서 맛있게 점심을 먹는다. **59년생** 후한 끝은 있어도 박한 끝은 없다. **71년생** 아둔한 나를 탓하고 상대를 배려해야. **83년생** 지친 친구에게 따뜻한 격려를. **95년생** 잔병에 시달릴 수 있으니 생활을 청결하게 하도록.

김상회의 四季

지피지기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다. 손자병법 모공 편에 나오는 말인데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 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뜻이다. 이 말은 사람이 한평생을 살아가는 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인생살이는 언제든 위험한 지경에 처할 수 있다. 더구나 위험이라는 건 예고를 하는 법이 없지만 역易에서는 예고 없는 위험을 미리 알려준다. 명리학에서 말하는 사주팔자는 개개인의 인생 설계도와 같다. 사주의 여덟 글자에는 놀라울 정도로 수많은 정보가 담겨 있다. 재능이 어느 분야에서 뛰어난지, 약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인생의 고비가 언제쯤 찾아올지도 담겨있다.

결국 사주를 안다는 건 내가 어떤 상황에서 빛을 발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 조심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는 말이다. 사람들은 성공이라는 꿈을 꾸면서 한편으로는 큰 어려움에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 성공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더 중요한 건 위기에 빠지지 않는 것이다. 사주를 알아야 한다. 사주를 안다고 모든 일이 술술 풀리거나 거액의 복권에 당첨되는 건 아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위험에 빠지는 건 막을 수 있다. 사주에 고집이 너무 강한 것으로 나타나면 혼자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거나, 다른 사람과의 갈등을 줄이려고 조심하면 된다.

자신의 기질과 약점 어느 시기에 인생의 고비가 찾아올 것인지 알 수 있으니 큰 위험에 빠지는 일도 드물다. 몸으로 부닥쳐야 알 수 있는 일을, 사주를 통해 미리 내다볼 수 있다. 나에게 주어진 카드가 어떤 것인지 명확히 알고 승부에 유리한 가장 좋은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세상살이에는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다. 그러나 사주를 통해 흐름, 운명의 흐름을 알 수 있다면 위험에 빠질 가능성은 훨씬 줄어든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 장 규	편집국장	윤 휘 종
인 쇄 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712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816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AI 기반 공교육 혁신… 서울 학생들, 미래 인재로 성장 지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기자회견

전국 최초 AI교육센터 설립 추진
서울대·경희대 등 주요 대학 협업
AIDT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방침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5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5년 상반기 성과를 돌아보며 ‘서울교육 핵심 정책 보고와 약속’을 발표했다. /이현진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AI교육센터 신설을 추진하며, 인공지능(AI) 기반 공교육 체제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5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교육 핵심 정책 보고와 약속’을 주제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AI는 단순한 기술이 아닌 배움의 방식을 바꾸는 도구”라며 “서울 학생들이 AI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적 책임을 실천하는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AI교육센터 설립을 준비하고 있으며, 해당 센터는 AI 교육 방향 설정부터 콘텐츠 개발, 현장 컨설팅까지 통합 지원하는 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이를 위해 경희대 , 서울대, 서울과기대 등 서울 소재 주요 대학들과의 협업 기반도 마련 중이다.

정 교육감은 “서울대와 AI교육·연구·창업센터 구축을, 서울과기대와는 로봇융합센터 설립을 논의하고 있다”라며 “올 하반기 중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AI 선도교사 800여 명을 중심으로 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기존의 단편적 연수 방식을 넘어선 AI 시대에 걸맞은 교사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새롭게 준비 중이다.

AIDT(인공지능 디지털 튜터) 도입과 관련해서도 서울시교육청은 선도적 기준 마련에 나섰다. 정 교육감은 “AIDT 사용 여부는 학교의 자율적 선택에 맡기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서울은 학기 단위가 아닌 실제 사용 기간을 기준으로 구독료를 산정하는 모델을 정립했다”고 밝혔다. 이는 학기 시작과 도입 시점 간의 시간차로 인해 ‘사용하지 않은 기간까지 요금이 청구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AIDT 사용의 실제 효과를 분석한 뒤 2학기 정책 방향을 재설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학기 종료 후, AIDT를 실제 활용한 교사 및 학생들과의 심층 토론회 및 의견 수렴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정 교육감은 “이번 하기 AIDT 도입을 신청한 학교는 29%였으나 실제로 활용한 비율은 24% 수준”이라며 “기계적 보급보다 현장 효과와 교육적 타당성을 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AIDT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교육자료’로서의 법적 지위 확보에 한 걸음 다가선 점도 주목된다. 본회의 통과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정 교육감은 “본회의 통과로 교육자료로의 법적 성격이 확정되면, 예산 지원과 교사 연수, 기기 보급 등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서울시교육청도 이를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선택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AIDT 완전 폐기론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정 교육감은 “이미 상당한 예산이 투자된 만큼 전면 폐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기존에 개발된 자료를 학교 자율에 따라 부분 활용하거나 보완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AIDT로 인해 현장의 교사들이 개발한 자료가 위축되지 않도록, 교사 자율성과 창의성도 보장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정 교육감은 AI 교육이 단순한 기술 활용을 넘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AI교육의 세 가지 핵심 과제는 ▲AI 윤리 문제 대응 ▲AI 도구 활용 역량 강화 ▲AI 기술 개발을 주도할 인재 양성”이라며 “국내 대학뿐만 아니라 미국 등 해외 교육기관과도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향후 AI교육센터를 통해 AI시대에 필요한 인재상을 명확히 하고, 이에 맞춘 커리큘럼과 교육환경을 정비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기초학력 보장, 교육활동 보호, 학생 마음 건강 지원, AI 및 수학·과학 융합교육 강화, 농촌 유학 활성화 등을 올해 중점 추진 5대 핵심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서울시,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접수

25일까지 요일제… 이후 자유 신청
‘사용 가능 매장’ 스티커 제작·배포

서울시가 오는 21일부터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1차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신청 시작일인 21일부터 25일까지는 요일제 방식으로 운영된다.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가능 요일이 지정되며, 예를 들어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요일제 기간 이후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요일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장애인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추진된다. 28일부터 동주민센터에 유선으로 요청 시 동주민센터 직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을 도와준다. 단, 동일 가구 내 다른 가구원이 있는 경우에는 제한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 스티커. /서울시

지급된 소비쿠폰은 서울시 내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서울시는 이번 소비쿠폰 이용의 편의성 증진을 위해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을 기존 24만개에서 48만개로 약 2배 확대할 계획이다.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한 사용처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전용 스티커를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시민들은 이 스티커를 통해 가맹점을 손쉽게 식별하고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현진 기자

경기도, 봉성포천 정비사업 728억 투입

전 구간 제방정비 완료 계획

경기도는 김포시 대곶면과 양촌읍 일원을 연결하는 봉성포천 지방하천의 정비사업에 총 728억 원을 투입해 전 구간 제방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봉성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26년 5월 설계를 완료하고 순차적으로 토지보상과 공사에 착수하게 된다.

도는 지난 2020년 봉성포천 하류(양촌읍 양곡리~하성면 봉성리 일원) 4.84㎞ 정비를 완료했고, 이번 사업에서 상류 3.08㎞를 정비해 봉성포천 전 구간에 걸친 제방정비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봉성포천 상류는 1시간당 약 40㎜ 정도의 강우량에도 침수가 발생되는 홍수에 취약한 지역으로써, 지난 2022년의 경우 교량은 물론 제방도로까지 범람하여 주택 침수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에 도는 하천폭을 기존 6m에서 정비 후 65m로 대폭 확장하고 제방은 약 3m 높이면서 유수 소통에 지장이 되는 교량 10개소도 재가설할 계획이다.

또한 신규 설치되는 하천 제방도로는 양촌역부터 한강 자전거 도로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향후 인근 지역 개발에 따라 산책로나 자전거 도로 등 친수시설로의 활용도 기대할 수 있다.

/경기=김용택 기자 mk4303@

서울시, 투자진흥재단 임원 모집

이사장·비상임이사 등 선발

글로벌 투자유치 전담 기관인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의 연내 출범을 앞두고, 서울시가 이사장 등 임원 선발 절차에 돌입하며 재단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투자유치 전담기관인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의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 8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선발하는 임원은 ▲재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이사장 1명 ▲재단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재단 운영의 중요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는 비상임이사 6명 ▲재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는 비상임감사 1명 등 8명이다.

자격요건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비전제시 및 전략적 사고역량 ▲관련 분야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 ▲문제해결 및 조직 관리능력 등을 갖추고, 각 직위별 구체적인 경력요건을 충족한 사람이면 지원할 수 있다.

모든 임원의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2년이며, 2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지원서 등 제출 서류는 서울시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8월 7일 오전 9시부터 8월 14일 오후 6시까지 서울시청 금융투자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이현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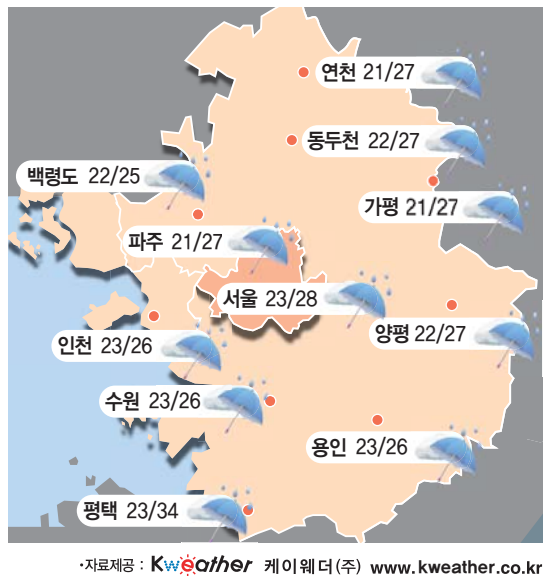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뜸 / 05:23 | 해짐 / 19:53

7월 16일 (水)
음력 : 6월 22일

수도권 날씨
23~28℃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메트로 한줄뉴스

▲ 젠슨 황 “미국 정부, 엔비디아 H20칩 중국 수출 허용” /사진 뉴시스

▲ 이스라엘군 공습으로 ‘어린이 6명’ 숨져…물 받으려 줄 서다 참변

▲트럼프, 유럽연합에 30% 관세 경고…‘스태그플레이션’ 현실화하나

▲러시아 외무장관, 시진핑 만나 ‘푸틴 중국 방문’ 논의

▲6월 중국 신축주택 가격 3.7%↓…“지원책에도 계속 하락”

▲이란, ‘우라늄 농축’ 레드라인 재확인…“조건 걸면 협상 없다”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 (02)721-9861

metroseoul.co.kr

metro® Life

제5712호 2025년 7월 16일 수요일

식품업계
용량 ⬆, 가격⬇
물가안정 동참
L1

큐라클
파이프라인 확장 등
신성장동력 마련
L2

“고온·고출력에도 끄떡없이… 극한주행, 믿고 달린다”

인터뷰

오네 레이싱 팀

(왼쪽부터)송현준 엔지니어와 이정우, 오한솔, 김동은 선수가 경기 전 HD현대오일뱅크 엑스티어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HD현대오일뱅크 제품, 주행 뒷받침
고성능 엔진오일, 고급휘발유 등 후원
내구성·보호기능 결합… 만족감 높아
고온환경에도 점도·질감 변화 없어

고급휘발유 ‘카젠’, 노킹저항성 개선
6년간 슈퍼레이스 공급… 성능 입증
안정적 연소 제공, 출력 끝까지 유지

지난 12일 열린 ‘2025 오네 슈퍼레이스’ 경기를 앞두고 정비사들이 차량점검을 하고 있다.

오네레이싱 팀 차량 정비 부스 모습. /이승용 기자

“고온에서도 점도 변화가 없어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다”

레이싱의 세계에서 1초의 차이는 순위를 좌우하고 극한의 주행 환경 속에서 엔진과 기어, 연료는 한계까지 시험받는다.

‘2025 오네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4라운드가 펼쳐진 지난 12일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 만난 오네 레이싱 드라이버들은 이렇게 입을 모았다. 이들이 말하는 차이의 핵심에는 HD현대오일뱅크의 윤활유와 연료가 있었다.

이번 대회에 출전하는 레이싱 팀 중 하나인 ‘오네 레이싱(오한솔, 이정우, 김동은)’은 CJ대한통운이 운영하며, HD현대오일뱅크가 올해 공식 케미컬 스폰서로 참여해 고급윤활유 ‘엑스티어(XTeer)’와 고급휘발유 ‘카젠(KAZEN)’을 후원하고 있다.

올 초부터 팀이 본격적으로 사용 중인 HD현대오일뱅크 제품군은 레이스 내내 안정적인 엔진 출력 유지와 정밀한 기어 변속, 노킹 억제에 기여하며 드라이버들의 주행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우 드라이버는 “레이싱카는 경기 내내 출력을 최대로 끌어올려야 한다”며 “윤활유 성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엔진이 가진 힘을 전부 쓰지 못하고, 심하면 도중에 출력이 떨어져 버린다”고 말했다.

이어 “엑스티어 엔진오일은 체커기를 받을 때까지 꾸준히 성능을 유지해주는 게 장점이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열에 의한 성능 저하를 느껴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현대오일뱅크는 오네 레이싱 팀에 다양한 윤활유 제품 중 엔진오일인 ‘XTeer Top PAO 5W-30’, ‘트랜스미션 오일 XTeer GL-5 75W-90’, 디퍼런셜 오일 ‘XTeer GL-5 85W-140’ 등을 공급하고 있다.

해당 제품들은 낮은 마찰, 낮은 점도의 엔진 윤활로 내구성 및 보호 기능이 결합되어 있어 드라이버들이 높은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

고성능 윤활유가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은 수치 이상이다. 변속이 잦은 레이싱카의 특성상, 오일의 점도 유지력과 기계적 마찰 감소 능력은 주행의 안정성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정우 드라이버는 “저희 차량은 시퀀셜 미션을 사용하기 때문에 변속을 자주 반복하는데 이때 윤활유가 제 기능을 못하면 실수 확률이 급격히 올라간다”며 “엑스티어는 그런 부분을 잘 버텨주기 때문에 안정적인 주행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고출력 차량이 슬릭 타이어를 쓰면서 접지력이 강한 상황에서 출력을 손실 없이 뒷바퀴에 전달하려면 디퍼런셜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번 대회에서도 손실 없이 깔끔하게 전달됐다”고 덧붙였다.

고급휘발유 ‘카젠’에 대해서도 매우 만족감을 표시했다.

김동은 드라이버는 “고RPM 영역에서 엔진 부하가 커질 때 옥탄가가 낮으면 노킹 현상이 발생하는데, 카젠은 그런 느낌이 전혀 없다”며 “특히 노킹이 일어날 법한 순간에 ‘멈칫’하는 기분이 드는데 그런 불안 요소가 없으니까 마음 놓고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다”고 말했다.

카젠은 일반 고급휘발유의 옥탄가(94)보다 높은 100의 옥탄가를 제공해 노킹 저항성을 대폭 개선한 제품이다. HD현대오일뱅크는 지난 6년간 슈퍼레이스에 이 제품을 공급하며 성능을 입증해왔다. 특히 고출력 엔진 환경에서 안정적인 연소를 통해 출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기 팀들 사이에서 신뢰도가 높다.

김동은 드라이버는 “엑스티어는 일반 차량용 오일임에도 불구하고 레이싱 환경에서도 충분히 버텨낸다”며 “고온에서도 점도 변화가 없고, 질감도 일정해서 오히려 일반 제품 중에선 가장 완성도가 높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레이싱팀 엔지니어 역시 엑스티어와 카젠의 성능을 극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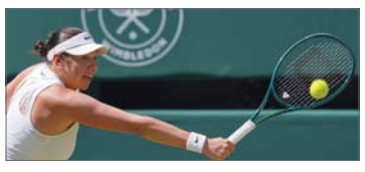
오네 레이싱팀의 송현준 엔지니어는 “연료와 오일이 어느 수준인지 궁금하다면 경기를 마친 뒤 정비하면서 보면 답이 나온다”며 “카젠은 안정적인 연소를 제공해 마지막 랩까지 출력을 유지했고 엑스티어 오일은 고온 환경에서도 점도 변화를 거의 보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오한솔 드라이버는 “미션 오일이 극한 환경을 버텨주지 못한다면 기어 체결 타이밍이 안 맞는 등 경기 결과와 직결되는 차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현재는 출력 저하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랩 타임으로 경기를 치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준비 많이 했고, 기대하셔도 좋다”며 “항상 현장에서 응원해주시는 팬들 덕분에 힘이 나고, 좋은 엔진오일과 윤활유를 사용하고 있는 만큼 성적으로 보답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메트로 한줄뉴스



▲손흥민, 웃으며 토트넘 훈련 시작…양민혁 “손흥민 그리웠다”
▲생애 첫 윔블던 결승 오른 아니시모바, 세계랭킹 톱10 첫 진입 /사진 뉴시스

▲선두 한화 추격하는 LG·롯데 맞대결…프로야구 후반기 17일 시작
▲국가유산진흥원, 광복 80주년 기념 액세서리 기프트 출시

▲세종문화회관 ‘누구나 클래식-라흐마니노프와 피아노’…신창용 협연
▲여름 산사서 펼쳐지는 뮤지컬 향연…화엄사 ‘모기장 음악회’